朝鮮日報 夕刊
本紙朝夕刊十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進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兩方主張接近되야 條約起草를終了
다음會談으로써大團圓될듯
北鐵讓渡第五次會談

【同盟東京電話】北鐵讓渡細目條件에關한東鄕、카즈롭스키第五次會談은三日午後六時부터外務省에서開催 實로六時間四十分間에亘하야四日午前零時四十分 散會하엿다 當日의會談에잇서서는蘇聯側으로부터 莫斯科政府에請訓하야 四、五日中에다시會談을繼續行하기로되엿는데 支拂保證問題에關하여는 日蘇間의意見이完全一致되여條約原文의起草를 終了하엿슬뿐 더러 物資價格裁定問題 退職資金支拂問題에 對하야도 兩者의主張은 大體로接近되는狀態임으로 다음會談에 잇서서는 兩者의意見은 거이一致될터로 一個年半에亘한北鐵讓渡交涉도近近大團圓을 告하게되리라고觀測되다 會談內容은다음과갓다

一、支拂保證問題
蘇聯은 從來日本銀行團의保證을要求하고잇든바 右要求를撤回하야 廣田外相의仲介案을受諾하야겨우原文을決定하엿다

一、物資支拂價格裁定問題
物資價格決定에對하며 蘇聯側은大體日本案을受諾하야 最後決定權을 第三國人에게與하자는主張을撤回하엿다

一、退職資金支拂問題
一個年半으로서 退職資金支拂을完了한다는 從來의主張을緩和하야 日本案의二個年으로妥協되엿다 但退職給年賦拂金의計算方法은 아직意見一致되지못하엿다

社說 生活과緊張

一

今年은 世界的 危機라고한다 日本에서 發한 華府條約廢棄通告는 這間 華府政府에 抵達하야 아즉아무러한反響이 업스나 이通告를둘러싸고 軍縮本會議를 開催하느냐마느냐 軍備豫備會商을 開催하느냐마느냐가決定되지못하며 不難하여豫備會商及 本會議가 開催된다하면또다시 日英米 其他 諸國間에軍備問題 其他로 一大角逐이 버러질것이요 獨伊의 蔑厭、蘇獨의 軋轢이벌서 擾亂되지안으리라고 斷言할수잇스며 西班牙、유고等의獨裁政治에 對한 潛在的 感情이언제 露現하지것도 明若觀火하다。

다시 눈을 돌려 西歐를바라보면 來十五日 잘地方의 歸屬問題로 人民投票가 開始된다。이 投票의結果 어느곳이 得勝할지 아즉까지 알바이업스나이歸屬如何로써 兩國間에 惡感이一層 深刻해질것은 또한 想像함만하다。이바게 墺太利를 둘러싼 아호리라 斷定하랴。이것들로써보면 世界는 모다緊張하얏다 하겟다。

二

그런데 朝鮮의 現實을 도라보면 果然어떠한가。인플레政策의餘澤으로 經濟界는 多少 活氣를 呈햇스나中小商工業者、中小農民、勤倆階級들에게는 오히려 生活의 苦痛을 感하며、敎育界는 昨年以來 若干의 中等、專門校의 新設을 보앗스나 學校된것을 몰수잇섯고、特히 學界에는 이러타고 大書特書할 名論卓說을 보지 못하얏다。民衆一般의心理는 投機的 一時的功名에 驅使되는 感이 不無하며爲有한靑年들은 自暴自棄하야 그날그날의 生活을 營爲하거나、腐敗墮落의길을 밟으되 無恥하게생각하는이가 增加하야가는것갓다 朝鮮全社會가 들어 이러한지라 矣暇에 生活을 向上하며 文化를 創造하야 理想을培養할수잇스랴。緊張한 國際情勢와 對照하야 너무도 虛無함에 一驚치 안흘수업다。

三

그러면 우리는 이 現實에逢着하야 아주 憂愁悲嘆으로써終始할것인가。精神을 가다듬고、大旗를飜하야 捲天席地할 意氣를 내일것인가。사람은 或은現實의 如何히할수도 업는것을慨嘆할지도 모른다。또 或은時勢의不利를 피게로 온갓 運動을파할지도 모른다。그러나 一民族의 理想이나 一社會의 目標가 一時、一年에 實現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錯覺이다。一民族或은 一社會의前進은 마치 一個人이 一目標를 세우고 前進함과 마찬가지니 或은 嶺을 넘고 或은 河를 건느고 或은 平原을 지나고 或은 鐵道를 탈수가 잇는것과 갓다。嶺과 河를 當한다고 自暴自棄하며 妄想 慨嘆한다고 이길을 다갈수가잇스랴

世上은 모름직이 慨嘆을버리고 들로 山으로 거리로집로 나서 現實과싸와 一步一步 再人와理想에向하야 直進하자。그리하기위하야 우리는 먼저生活을 緊張하자。

佛外相、羅馬向發
佛伊新協定成熟
巴爾幹의空氣極緩和

【羅馬二日發聯合】佛國外相라발氏는 三日巴里를出發하야 夜行으로羅馬에赴하야 뭇소리니首相과會談하고 墺太利獨立保障과接壤國關係上相互不可侵을骨子로한協定實現에努力하기로되엿다 新協定은左의二方式을取하야 第一方式은라발外相의羅馬滯在中에 調印을보게되리라고期待되다 其內容은左와如하다

一、佛國、伊太利締盟案
佛國及伊太利는 墺太利의獨立을保全하고 共獨立에關한再聲明을發함

二、接壤國協定案
利太利、유고슬라비아、헉코슬로바키아及 匈牙利는 墺太利와 相互內政에 干涉지안코또 如何한侵略的行動이나 取치안흘것을 協定함

그리고 右二項外에 左와如히總佛伊兩國의問題도包含되엿다
一、유나스在住 伊太利人의身分保障
一、佛國、伊太利兩國의植民地境界確定問題
右協定實現이成立되면 歐洲의險惡한 空氣는緩和되여佛伊兩國의關係도 敦厚되리라하야 크게期待된다

天皇陛下御微恙 政始의御儀御中止

【同盟東京電話】宮內大臣謹話 天皇陛下께압서는 舊臘來御感冒로御假床을奉願하엿든바 其後御經過는 極히御良好하시여 이미 二十九日正午以來御平溫으로御政務는廢치안흐시엇다그러나 아직時時로御咳가게심으로茲兩三日은 御假床하압신대로 御靜養을奏請하엿다 따라 政始開始의 御儀는御中止하시기로되엿다 그리고今日의御樣을 拜察하면不日御起床하압실터인데 陸軍始爲始하야 觀兵式은戶外의長時間의御儀임으로行幸御中止를奏請御裁可를得하엿다

日本의聯盟脫退後도 南洋委任統治公認
十一日理事會서報告

【壽府特電三日發】日本의國際聯盟脫退는 今年三月二十七日로써効力을 發生하게되는데 來一月十一日聯盟理事會에서는 實際効力發生後에도 日本의南洋委任統治를 公認하는報告를 行하기로되엿다 同時에委任統治 委員會는 左와如한報告를 前記十一日理事會에提出하야 日本의南洋委任統治領에잇서서 諸般改善의實績을行하엿다는同時에 日本의貿易會社가享受하고잇는 南洋貿易의利益을南洋土人에게도 均霑케할것이라는意見를表示할터이다

二、委任統治領에 適用할一切의國際的計畫實施를發表할것
三、委任統治領內灌漑의 改善에 消費되는費用의 詳細를發表할것
四、土人의財產과富의增進方法을 表示할것 그리고右報告에依하면南洋貿易에잇서서 利益은輸出이멀리輸入을超過하고 其大部分은 日本의貿易會社가獨占하엿다한다

今日本紙八面

八面鋒

◇日光氷上競技大會에서 朝鮮選手가 모다 最高記錄를 出現。◇氷國에서 生長한 때문이냐 大陸에서 成長한 때문이냐。또 或은 고추、당초를 먹은탓이더냐。◇原因은 別問題로하고、우리의 自尊心、自負心을 기를資料는 充分。◇昨年中 米飛行機의 對外輸出額二百八十八萬圓、그中 對中輸出이 最高位라고、무엇을目的한 輸入? ◇蔣介石과 西南派와 妥協說。合則與 分則亡은 自古의 格言。

萬國郵便取扱 ◇改◇正◇約◇定 一月一日부터實施

昨年三月埃及 카이로에서開催된萬國郵便會議에서 改正된萬國郵便取扱改正約定은去一日부터 日本內地同樣으로 朝鮮에도實施되엿는데 右는一部料金의引下를爲始하야一般利用者를爲하야 자못便宜를與한것이다

中國、壽府間 無線電話開始

【上海發】國民政府交通部에서는 昨春 英、伊等과의 無線電話實試를試驗中이든바 最近에다시쥬네브와의間에 無線電話를開設키로 英國으로부터 機械를購入하야三月부터實施키로되엿다

人事·集會

▲越俊輔氏(東京證券株式會社長) 證券取引所視察次二日飛行機로 博多、大阪、東京等地에旅行十日歸任豫定
▲室田眞雄氏(內務局地方課事務官) 兼任朝鮮總督秘書官退官을官人事次來社

海外經濟電報

倫敦金塊 七磅○志六片二分一
倫敦銀塊 二四片八分五
米棉 百二錢低
印棉 不變
스틸—株 三八弗四分三
아나콘다株 二二弗
米田爲替 二八弗七一仙
英米爲替 四弗九二仙四分三
紐育銀塊 五四仙八分七

▲米日爲替市況 【紐育三日發聯合】三日의米日爲替는賣二十八弗七十二仙 買二十八弗七十仙

▲東京爲替(四日)
對米 賣 二十八弗八分五 買 二十八弗四分三
對英 賣 一志二片卅二分十五

▲大阪爲替
對米 賣 二十八弗八方五 買 二十八弗四分三
對英 賣 一志二片卅二分卅一 買 一志二片卅二分一

市勢와商況

株式 至極平凡大發會 嫌氣投物로暴落臺割

波瀾많을今年의 大發會는春高氣分이업시劈頭부터 警戒裡에 至極平凡히 寄付되엇스니即朝取四十錢高인六十二圓三十錢 朝新二十錢低인三十圓十錢 大新三十錢高인八十九圓四十錢 東新二十錢低인百四十圓五十錢 日產五十錢高인百圓七十錢에大發會되엇後그래도年初高를밋고 越年하얏던買玉의投物이나와서 漸落步調를取하야朝新二十九圓九十錢 大新八十八圓九十錢 東新百三十八圓九十錢 日產九十八圓九十錢에各盤割不勢裡大引되엇다

多額取引員表彰

一等 東亞證券 三十五萬九千七百七十枚
二等 松山 三十五萬六千九百九十枚
三等 立山 三十一萬九千八百枚
四等 白樂三 二十七萬八千八百六十枚
五等 白井 二十四萬三千五百枚

株

해보다도 波瀾重疊이 豫想되는 新年初立會는至極平凡 嫌氣投로低落▲內外 모든不安을 그대로包藏하고越年한마큼嫌氣分으로라도 뛰어놀수가 업것지▲또二日間連休가잇스니 정작市勢는七日부터正式으로 開戰? ▲大發會에 바짝하는것조차 업섯스니 一應低價保護이 거듭되고서新規材料를迎하야가지고 上下開變動이 생길모양이니▲섯투른强弱間은 집어치우고한잔드시오▲多額取引員表彰에는東亞證券이 一等의榮冠을 차지하고 三等에는 朝鮮人中最古店인白樂三商店 前途多幸할진저

◇寫眞은 朝取證券部初立會光景

期米 新春軟弱裡에 初立會의振鈴後一落

前場反落

新春和氣靄靄裡에初立會는始作되엿다 阪地는中限三十圓二十錢인 客年納會價보다八十錢低로 新甫三限은三十圓二十錢인 十二丁上騰로發會되고 當地는中限二十七圓八十九錢인客年納會價보다의 十丁低로新甫三限은 二十八圓○九錢인二十丁上騰로發會되엿다 其後阪地는五六丁低落에不過하엿스나 當地는意外賣氣旺盛하야 中限은一氣로六十一錢까지瓦落하고 先限은九十錢까지下押하더니 結局阪地二十五錢의 低價로부터三十一錢까지返戾圍場함을伴하야 八節九十四錢으로二錢에 擧을止하엿다

新春初立會式

朝取米豆部에서는 四日午前九時十分振鈴으로 新春初立會式을擧行되엿다 定刻에 荒井理事長의式辭로 過年度取引員賣買表彰受渡高發彰이잇섯스며 그리고取引員組合新田委員長의 式辭로取引店員의 勤續表彰이잇슨後滿場拍手로써 立會를開始하엿다

賣買及受渡高 成績等級表彰

昭和九年度 朝取米豆部取引員의 賣買高及受渡高의 成績을表彰하엿는데 그等級은左記와갓다

◇賣買高
一等 丸福取引店 [illegible]石
二等 金谷取引店 [illegible]石
三等 金太取引店 [illegible]石
四等 丸マ取引店 [illegible]石
五等 丸玉取引店 [illegible]石

◇受渡高
一等 金太取引店 [illegible]石
二等 丸福取引店 [illegible]石
三等 金メ取引店 [illegible]石

勤續店員表彰

朝取仁川米豆部取引組合에서는 恒例에依하야 新南初立會當日에勤續店員의表彰이잇섯는데 그氏名은 左記와如하다

◇十五個年勤續
▲丸福取引店 吉村榮左衛門
▲丸福取引店 池昌寬

懸賞募集 初立會價

懸賞募集한 今年初立會價는 如左한데 入賞結果는 八日紙上으로 發表하겟습니다

朝取期米 二十八圓○九錢
朝新株 三十圓十錢
東新株 百四十圓五十錢

短期初立會價

	初立會價	大納會價	比較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鐵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初立會式

朝鮮取引所證券部에서는 四日午前九時부터諸員參集小杉理事長代理의 式辭가잇슨後 別項多額取引員에게 表彰狀을授與하고 白井委員長의答辭로閉會한後 九時三十分正刻부터活潑한 擊柝聲裡에 大發會되엿다

滿洲移民縱橫觀
移民部落을踏査하고 (1)
金麟伊

◇新年號에關한 材料를 探集하고저 나는 客臘 滿洲國朝鮮人移民部落의 實狀을 踏査할 機會가잇섯다 이제 其當時에現地를 視察한 實感을 中心으로 總督府에서 이미 昨年부터 試驗移民에 着手하엿고 또 今年부터 十個年間 大規模로 實施할移民計劃에 對하야 即 滿洲移民事業實施에 잇서서 特히 考慮할諸問題를 考察論評하고저한다

一、移民의意義

移民은 社會와 自然으로 부터 咀呪받은 弱者이다 凶作水害其他의 原因에 依하야 經濟的으로 一大脅迫을 當하게 되면 그들은 不得已 情드린 故鄕에서 他人과가튼 生活을支持할수업슬뿐아니라 衣食住의欠乏에 依하야 赤手空拳으로 所謂新天地를向하야 新血路를求하지안흐면 할수업시된 社會의弱者이다 그러나 移民은決코棄民은 아니다 그러니 爲政當局者가 이에 對한 充分한斡旋과 指導를할은 社會政策上 또는 人民保護上當然한處置라하겟다

大體 朝鮮人의 過去滿洲移民即自由移民은 歷史가 長久하다 하야도 所謂 目的意識的인 計劃移民은 現在總督府의 大移民計畫이 其嚆矢라 하겟다 滿洲事變以後 滿洲의 治安과 秩序가 整頓됨에따라 滿洲로移住를始作한 朝鮮人은 客年末까지에總督府의 集計에依하면 十萬의多數에達한다 그러나 이것은所謂自由移民 又는 流民이라할것이지 移民을爲하야 當局者의適當한 斡旋과 指導는 업섯다

二、移民計畫實施經過

그런데 總督府에서 多年間의懸案이든 朝鮮人滿洲移民을 實施하고저 再昨年初부터 將來의移民部落 中心地로 營口、河東、鐵嶺、綏化의 四個所에 安全農村이라는것을 設置하고 事變當時의 避難朝鮮人을收容하야 水田開發과 農場施設에 汲汲하엿스며 昨夏三南大水災의罹災民救濟의一端으로 이罹災民을 滿洲로輸送하게되야 大移民計劃의試驗移民으로 昨年十月부터 前後數次에亘하야 五百戶三千名을 輸送하야 營口農村에 收容하엿스니 이것이滿洲移民의 前哨이다

三、移民計畫內容

總額二百萬圓으로 其中五十萬圓은國庫補助를하고 殘餘一百五十萬圓은 現在의總督府의滿洲移民代行機關인 東亞勸業公司의最大持株會社인 滿鐵에서 低利로融通하게되엿다한다

또 來年부터 實施한다는 大移民計畫은 五千萬圓의 半官半民的移民會社를 創立하야 京城에 本店을두고 十個年乃至 十五個年間에二十萬戶 百萬名을 滿洲로 移送하되 每年二萬戶百萬名을 移住식히되 大部分水田을耕作식힐터인데 每戶二町四段의 水田을 賃耕식히고 農場管理費와 土地買收費의 利子及其年賦償還金等을納入식히게하야 約十年後에는 그들로하여곰 二町四段步의 水田所有者가되게하야自作農으로서 自立식히어健實한農村을 建設하게하자는것이 移民計劃의 目的이고內容의 概觀이다

그리고 總督府에서 實施할大移民計劃의 本格的實施는 明春부터 着手하되 于先今春부터는 其前哨移民으로 三南地方農民中에서二千戶一萬名을 選拔하야北滿으로 移民한다는바 其經費는

株式 (四日)

朝取短期 / 東京現株 / 東京短期 / 東京短期取組 / 大阪短期 / 大阪長期 — [illegible]

期米 (四日)

朝取期米 / 朝鮮內各地期米 / 大阪期米 / 東京期米 / 日本各地期米 — [illegible]

商品 (四日)

大阪綿糸 / 大阪棉花 / 各地人絹 / 大阪砂糖 / 滬外砂糖 — [illegible]

謹賀新年

安州 安州無名會
安州邑內 妓生 金花 妓生 金玉蓮
朝鮮穀物貿易 大昌商會 電話(タ)又ハ(タイ)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 トコ 常井 イアキラ 章
安州邑內 尹桓
安州邑新倉里一七 李燦洙
安州邑內 金鎭泓
安州邑 康榮時
安州邑米市場通り 中央精米所 主李錫祉
安州邑 合名商會
安州邑內 安東商會 林秉鉉
朝鮮安州 藤村恒三商店 振替口座京城一〇六 電話三
安州邑內 平安醫院
安州邑內 春山醫院 金景柄
安州公醫 池萬根
安州邑內七星里 祥麟齒科醫院 院長 崔祥麟
安州邑內 東亞印刷所 林錫六
安州邑內 明月館
安州邑七星里三三 同華樓
安州邑內 南川燒酒釀造場 電話三九番
安州郡東面面長 金基七
寧邊郡獨山面事務所 車晉淳 車柔勳 車鍵均
寧邊邑內西部洞四六六 李瀅鎭
安州 金濟用
新安州 穀物組合
平南安州邑 天佑旅館 館主 康淳玉
コロムビア ポリトール特約代理店 平南安州 歐米樂器店 技術員 李錫興
安州邑內 妓生 古後龍雄 / 羅化仙 / 李花蓉 / 崔玉心 / 金玉仙 / 金錦紅 / 張愛花 / 孫春紅 / 朴珊瑚珠 / 韓明玉
寧邊郡獨山面德川洞 李圭三
寧邊郡獨山面修鳳洞 武敎九
寧邊郡獨山面修鳳洞 峠福市
寧邊郡獨山面 元興商會 寧邊出張所
館西面職員一同
公醫 李河殷
新安醫院 朴時燦
館西公立普通學校 鄭匡楹 金烈
信興義塾長 李之欽
龜城館
平壤百貨店
金命吉
兄弟商店
朴道淳
金山樓
木物穀物 白大興
釀業 金信孝
安州本町四ツ辻 高級運動具蓄音機樂器レコード各種取扱 大洋商會
寧邊郡獨山面砂防事務所 張德明
寧邊郡獨山面 片倉寧邊農場
安州郡東面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朝興驛 下川豊
安州驛 中村豊
安州 洪再曠
造岳
三元商店 元炳翰
山梨水晶 館西總代理店
三成理髮館 金君錫
寶成鑛業所
東成旅館
朴京信 金光澤 金淳奎 朴永詩 三合居 保眼堂 金秉河 金昌龍 金之珉 金炳希 王瑞猷 金亨泰 李春景 黃元澤 方貞善 金行洙 李正燮 李弘組

今日信川의拳銃犯 巡査狙擊逃走中被捉

昨夜富豪家襲擊犯人

巡査는生命이危重

【信川支局電話】 이일밤 구시십분경 황해도신천군신천면양광리(信川郡信川面良光里) 부호 리병한(李秉漢)로이집에돌연 괴청년세명이달려들어 두명은문밧게잇고한명은방안에들어서서 그집아들 리용인(李容仁)에게향하야시국을표방하면서돈을 강청하다가듯지안허 결국은권총을세방이나발사하면서 위협하엿스나집사람들이 소래를처서괴한은 그대로도망하여버렷다 이 에급보를접한 신천경찰서에서는 비상경계망을느리고 범인을탐색경계중 사십분경 신천읍교탑리(校塔里) 부근에서 경계중의 신천경찰서김동순(金東順)순사가괴상한청년을발견하고누구냐고뭇고 몸검사를하려할때 괴청년은「아무것도가진 것이업습니다」고하며 두팔을들어보이는체하다가 돌연권총을발사하야 순사의외인편빰을바로마치고달아나자 순사는피를흘리 면서야산정가량추격하엿다 이때에급보를받고 경찰대가자동차로추격하야 오후두시경온천면랭정리(溫泉面冷井里) 산밋헤서 잡엇다는범인은 재령군북률면(載寧郡北栗面) 장재명(張在明)(二七)이라고하는데 지난가을까지서신천서과자장사를하다가 복룸 로이사해간사람이라하며 그정체는상세치안타 또그외에도한명을검거하엿다 총에마즌순사는입원식히어빰에백힌탄환은 떼엇 스나 생명이위중하다 (號外再錄)

國府對滿義會 攪滿特派隊發覺

元滿洲國檢察官陳海濤等

哈市에서畢竟被捉

【哈爾賓】 하얼빈만주국경찰은지 난십이월이십이일 합시 도외순화 가(道外巡化街)이십일번지일출려 관(日出旅館)에서 만주국인 세명 을강도혐의자로인치하고 취조한 결과뜻밧게도그들은남경정부대만 의회(對滿義會)에서 지난대동(大 同)이년에 만주국을교란식히기위 하야특파한 진해도(陳海濤)와 그 의부하 두명인것을 자백하얏스므 로 방금계속취조중인데 이제그들 의활동한 내용을보건대 진해도는 호남성(湖南省)출생으로현금삼십 팔세인데 처음에길림법정대학(吉 林法政大學)을마치고 남경법정대 학으로드러가졸업하는동시에삼십 세의 소장년령으로 장춘지방검찰 청(長春地方檢察廳)에들어가그후 길림고등법원 검찰관이되고 만주 사변후에는 길림성공서특무가되 얏다가 대동이년투옥협에 남경정부 감찰원장(監察院長)으로잇든 거 정(居正)씨와 친척이됨을밋고 만 주투탈을하야 남경에가서 국민당 중앙당부에 들어가 대만의회에서 만주국의 실정보고를하고 다시거 긔서 만주국 교란의사명을 바 다 특파되야 운동비 이십만원 을가지고 왕운재 (王雲才)하자도 (何子濤)등과함께 다시만주에 들 어와 왕운재는 치치할(齊齊哈爾)의교란을 담당하고진해도는길림의교란을 담당하얏스며 하자도는길림을 교 란할것을담당하야 진해도는 만주 국국방긔병부관조영오(姚星吾)와 련락하야삼성의 반군들과 악수하 야군자금을수차교부하고실행에착 수한것이엇다한다

醉客列車에轢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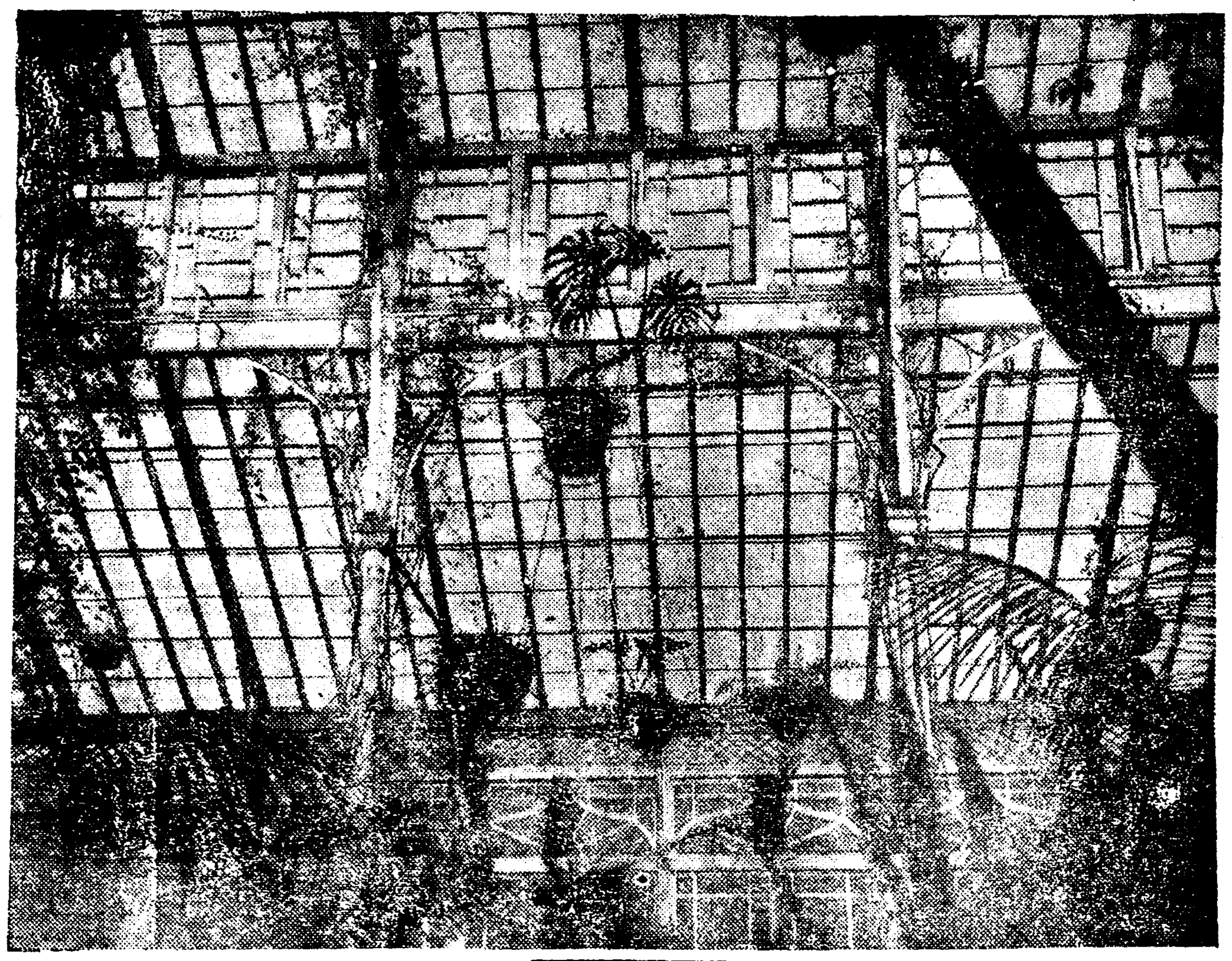
상일오전네시쯤에 시외 신마장리 (新馬場里)경원선 선로우에서 나 이오십이삼세 가량되여 보이는일 본남자한명이「단젠」에「돈비」를걸 처 입은채로 기차에바치어즉사되 여 잇섯는데 신분은조사중이며 술이취하야 거러가다가 마츰그때 에 복계(福溪)로가는화물 렬차에 바치어 즉사된것 인듯하다

貨物自動車가 印刷所를부서

삼일오후열한시오십분경에 시내 관수동(觀水洞)내선자동차부에서 는조수황금정삼정목일백구십륙번 지 최중해(崔仲海)(二)가 차고에 너허둔대형「빼쓰」에 올라 안저서 작난을하다가그만변속기(變速機) 를 젓겨노아서「빼쓰」는 움직이기 시작하야 건너편관수동 일백사십 오번지 박명호(朴明浩)의 인쇄소 유리창을 박아노아서 문장과유리 십여장을 산산히부서트리고 정거 하엿다 이로인하야 부근은일시소 동을 이르키엇스나 인명의손상은 업섯다고한다

京釜線에 列車增發 乘客激增으로

새해의명랑한소식은경은연귀를동 귀농긔토하는 긔차를 타고―철 도국에서는 지난년말때 과세를하 기위하야 현해탄을넘어간 손님들 이 특히다른해보다 만엇슴에비취 여 각관청과은행회사들이·사무를 개시하는 오는칠일을 전후하야서 는 도라오는손님이 역시만흘것을 예측하고오는오일부터칠일까지삼 일간부산경성간에 팔십칠호 이상 등급행렬차를 편도(片道)로 운전 키로 하엿는데부산을떠난 예엽야 승인봉시로 경성도착은 오후세시 라는데 급행료금은 이등원오십 전삼등칠십오전이라한다



◇……溫室의 봄을 차저서 창경원에서

레코―드窃盜

시내영락정(永樂町)이정목십륙 번지 전과일범 최용철 (崔龍喆) 은삼일밤 아홉시사십분에 영락정 이정목 일백십팔번지성(成)이 라는사람의집에 침입하야「레코―드」 삼십삼매를도적해가지고어데론인 지도주해버렷다한다

前科者로流離 타가또窃盜

찬세상에서 푸대접바더오든 소년 이 새해벽두 남의물건을훔치어전 당국에 잡히다가 경찰에잡힌사건 원적을 전북전주(全州)에두고 시 내화원정(花園町)일백일번지일광 려관(日光旅館)에류숙하는고상철 (高相喆)(二七)이라는 소년은 상일 오후 다섯시반경 시내 본정오정 목삼본(森本)이라는 전당포에지 리멘(縮緬)등 일본옷사 삼십여 원어치를 전당잡히러갓섯는데 전 당포주인이 의심을 품고 소관본 정서에 밀고를하여 즉시 현장에 쫏차온 동서원이 본서에 인치 취조중인데 그의 자백에 의하 면 그는본시고향에서 목공업에종 사하든중 수년전 경성에올라와직 업을 구하다가 실패하고생활에핍 박을바든끄테 절도죄를 저지른것 으로 경찰에잡혀 개성소년형무소 (開城少年刑務所)에서일년간형을 치루고작년십일월에출감하엿다출 감을하야다시직업을엇고자경성으 로올라왓스나 더구나 전과자인그 에게는 용이히 구직은되지아니하 고 먹고살길은업서 이래시내각처 로도라다니며 남의물건을 훔치어 다가는 매각혹은전당에잡혀 생활 을유지해왓다 그리하야 금번에도 이일밤 시내욱정(旭町)일정목어 는주인업는 집에드러가 전기와가 튼물건을훔치어다가 전당을잡히 려든차에 그와가치 체포된것이라 한다

船體動搖로 乘客墜落死亡

상일오후 여덟시사십오분 인천해 안기선회사(仁川海岸汽船會社)소 속서산환(瑞山丸)(六七톤)이출범 성연(聖淵)에서 승객 마흔세명을 태우고 인천으로 귀항하든중인천 항에서 서남으로 약일리(一浬)가 량되는 해상에당도 햇슬지음갑자 중서산군 대산면대중리(瑞山郡大 山面大中里) 전갑환(全甲煥)(二一) 이갑판에나와 선실문에 기대어잇 는데선체가 급격히동요되면서 그 바람에 동인은바다가운데로 떠러 젓다배는즉시 현장에머물러 수사 에노력하엿스나 어두운밤이라 발 견치못하고 사일오전 일곱시반에 다시 인천으로부터 경비선이현장 에출동하야 부근을 약한시간이나 수색하엿스나 시체도 발견치못하 엿다

變態的暖候로因하야 朝鮮氷上豫選은流會

代表選手推薦派遣

例年가트면 漢江과大同江은結氷 하야 滑氷策이彼躍할때이것만今 冬의變態的氣候는 數回스케―터 ―들로하여금 脾肉之嘆을할지경 으로 一月四日이되도록結氷을보 지못하야 明五日부터 漢江氷上 에서行하려든 朝鮮神宮氷上大會 兼全日本氷上選手權大會에 派遣 할朝鮮代表豫選會는 不得已延期 케되엿는데 主催側인朝鮮氷上競 技聯盟에서는 昨三日緊急委員會 를열고 討議한結果 來十日까지 에 豫選會를開催키難한 時에는 朝鮮代表七名을同委員會에서 推 薦하야 來二十二、三日에日光서 열리는 全日本選手權大會에派遣 키로되바 七名中의二名에게만은 旅費의若干을 補助할터이나其外 選手는 全部自費로出陣키로되엿 다

京師럭비再勝

【電通大阪電話】全日本中等學校 럭비―大會京城師範對京都三中戰 은 三日午後一時二十分부터 甲 子園南運動場에서 岩尾氏主審下 에開始한바 京城師範은 前後半 모다드라이―結局六對〇으로京 城師範勝

京師6 {3―0 3―0} 0京都三中

天氣豫報

晴

七七四粍의 高氣壓은 南滿洲 로부터 朝鮮으로擴大되여低氣 壓은 九州南海上과 日本中部 와 樺太方面에잇서선 모다北 東으로 進行中이다 南鮮은曇 天이고 其他는 天氣가조코氣 溫은 釜山의五度、中江鎭의零 下二十六度와의사히에 잇서서 昨朝보다五度內外나렷다 明日 은 日氣가조코추차것다

氣溫 昨日 最高 同 最低零下一六、五〇 今朝 最低(同)六、三 日 正午(同)三、二

一月四日(金曜)

◇午後六時 童話 거지가된王子 紙芝居
◇同六時二五分 講演 新年의展望(三) 李光洙
◇同七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양도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 (나)唱劇調 水宮歌 沈相健 鼓手 丁元燮
◇同八時 俗曲 一、寧邊歌 二、靑春歌 三、도라지打鈴 四、開城난봉가 五、방아타령 六、梁山道 七、漢江水打鈴 李鑄紅 鍾路券番綜成
◇同八時四五分 (東) 室內樂피아노三重奏曲 0短調作曲 三 一아렌스키―作曲 실로다·트리오

一月五日(土曜)

◇午後〇時〇分 京城歌謠 一、時調와男唱지름 二、赤壁歌 三、平壤歌 金鍾坡 金芙蓉
◇同六時 하―모니카獨奏 一、아리아·베리…베리오作曲 二、자장가…후―자作曲 三、로만쓰·발킨렛트作曲 四、G線上의아리아…빠하作曲 五、자장가…모차르트作曲 六、古典의步遊…모―리어作曲 宋一九
◇同六時二五分 講演 新年의展望(四) 趙鮮朝鮮의將來 朝鮮日報社社長 方應謨
◇同七時三〇分 流行歌 姜石燕
◇同八時 歌謠 一、將進酒 二、漁夫詞 安鶴仙 金花香 大笒…金永根 杖鼓…金一宇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沈淸歌 申錦紅 鼓手…林鍾成
◇同九時 映畫이야기 朴應冕 音樂伴奏

一月六日(日曜)

◇午後〇時五〇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雲淡風輕 二、白髮橫江 三、花草歌 (沈淸傳中) 四、할소는데(赤壁歌中) 鄭(?)錦香 鼓手 池龍九
◇同六時 童謠 一、齊唱 귀뚜람이 三、齊唱 허재비 四、獨唱 가은 五、齊唱 구시랑을 六、獨唱 … 七、齊唱 영감님 八、齊唱 장군석 九、齊唱 … 은행 妙洞學院兒童 指揮 尹…植 伴奏
◇同六時二五分 講演 新年의展望(五) 新生 申興雨
◇同七時三〇分 南道歌謠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興打鈴 五、개고리打鈴 吳翡翠 金素姬 大笒 朴鍾基
◇同八時 피아노獨奏 우―드
◇同八時三〇分 音律 靈山會像 玄琴 趙彝淳 洋琴 金相淳 … 高在德
◇同九時一〇分 고사굿 …

氷上萬米에金正淵君 世界的快記錄作成

千五百米엔張祐植君優勝

年頭스포―츠界快報

비상조선(氷上朝鮮)의 세계적진 출을압두고 대기중에잇는 우리빙 상용사들은 예상그대로의 통쾌한 뉴―스를전한다

지난삼일에 일본 일광(日光)에 서열린 전일본대학전문빙상경기 대회에서 우리빙상계의 초특급 (超特急)이요 작년도 전일본스피 ―드선수권보지자인 김정연(金正 淵)(明大)군이 일만메돌경승에세 계기록을 육박하는 십팔분사십륙 초삼(一八分四六秒三)이란 경이 적 일본신기록을지어 단연우승 하엿스며 재작년 일본선수권보지 자이든 리성덕(李聖德)(早大)군 은일핏주는저 십구분이십오초의 일본학생 신기록으로 이등을하엿 다 그리고안중희(安重熙)군이 사 등을하엿고 일천오백메돌경승에 는 장우식(張祐植)군이 이분삼십 구초일의 괘기록으로 우승하엿스 며 최룡진(崔龍振)군은 스타―트 에잡치어 앗가웁게 삼착되엿다

이리하야 조선선수들로 일광의 은반은 완전히정복되고잇스며 총 득점으로는명대(明大)가우세를뵈 이고잇다 제일일에는 오백메돌과 오천메돌을행할예정이든바 결행 관게로연기케되엿다(號外再錄)

◇記者註 金正淵君이 作成 한一八分四六秒三은 昨年同君이 保持한 日本最高記錄一九分二秒 八을突破하기十六秒餘로서 世界 記錄一七分一七秒四(諾威깜센)보 다는 一分二八秒餘가잇다 그러 나 一九三二年米國「레―크플라 싯드」에서行한 第三回世界冬期올 림픽에서作成한 올림픽新記錄一 九分一三秒(米國짜피―)에比하면 金君의 이번記錄十八分臺는 世 界的으로活躍함에 充分한大記錄 인同時에 東洋에잇서서諸選手가 十八分臺를向하야 惡戰苦鬪하엿 스나 突破치못하든것을 金君이 이번에快히突破한것이다 압호로 남은全日本氷上大會와 世界올림 픽豫選까지에 果然金君이 世界 記錄을向하야 어데까지 肉薄할 것인가에 부치는企待가자못크다

第一日의記錄

【日光電通電話】삼일오전열한시 부터일광에서열린전일본대학전문 비상경기대회의기록은다음과갓다

◇千五百米決勝

▲一着 張祐植(明) 二分三九秒一
▲二着 濱 (明)二分三九秒四
▲三着 崔龍振(明)二分四二秒八
▲四着 石 原(早)二分四三秒九
▲五着 酒 井(早)二分四九秒三
▲六着 渡 邊(早)二分四九秒三
得點 (明)十五點 (早)六點

◇一萬米決勝 (오픈·코―스)

午前十一時부터擧行 亦是早明의 爭霸戰으로 終始接戰을 演하드 니 金正淵君은(明)李聖德(早)을 一週리―드하고 十八分臺의 日 本新記錄으로一着되엿다

▲一着 金正淵(明) 十八分四六秒三 (學生及日本新記錄)
▲二着 李聖德(早)十九分二五秒一(學生新記錄)
▲三着 穗口重雄(早)十九分二五秒二(學生新記錄)
▲四着 安重熙(明) 五着 山田(早)
▲六着 本田(明)
得點 明十點 早十一點
第二日總得點 明二五點 早一七點

【寫眞은 金正淵君】

五千米決勝에 李君또優勝

五百米崔龍振君二着

【電通日光電話】제삼회전일본학생빙상선수권대회최종일은 사일 에행한바 오천메돌경승에는 리성 덕(李聖德)군이 일본신긔록으로 우승하엿다 이날의전적은 다음과 갓다

◇五千米決勝 (오픈코―스)

▲一着 李聖德(早大) 九分一三秒八 (日本新記錄)
▲二着 金正淵(明大)九分一四秒二(日本新記錄)
▲三着 穗口(早大)九分一六秒二
▲四着 安重熙(明大)

◇五百米決勝 (세파레―트코―스)

一着 石 原(早大) 四五秒〇 (大會及日本新記錄)
二着 崔龍振(明大) 四七秒一 (大會及日本新記錄)
三着 張祐植(明大) 四八秒四
四着 柴 山(早大) 四八秒九

◇寫眞은 張祐植君

◇寫眞은 崔龍振君

(寫眞은李聖德君)

謹賀新年 高城

金剛山 大本山乾鳳寺宗務所職員一同

金剛山 大本山楡岾寺宗務所

高城邑內 江原産 赤松 木材 穀物 善益木材商會 東 晋 君

高城郡縣內面津堡 酒造 海産業 尹開城

金剛山 大本山乾鳳寺 鳳鳴中學校職員一同

東海北部線高城驛前 (王)高城海陸運輸組 電話高城五番 振替京城一九九三二番 私書函高城三號

東海北部線高城驛前 (リ)貨物自動車運送部 李鍾化

高城邑內 廣濟醫院 陳庭錄

高城邑內 高城燒酎釀造場 電話高城二番 振替京城一二七九〇番

東海北部線高城驛前 高城酒造株式會社 高城酒造株式會社運送部 電話二四番 振替京城一五四四一番

高城郡新北面猪津 肥料製造 海産業 金鎔斗 長箭支店 穀物 雜貨 貿易

高城邑內 朝鮮料理 平壤館 金玉仙 金鳳仙 松竹 朴月仙 崔監仙

高城郡縣內面乾鳳寺 卓凌虛

高城邑內 救世醫院 白永祚

東海北部線高城驛前 (仲)仲買人組合運送部 社長 朴來允 代表者專務 丙奉來 電話三一番

高城邑內 綢緞 布木 三益商店

高城條津 高城漁業組合指定商人 海陸物産 貿易委託 崔淳學 電略(サ)又ハ(〇サ)

高城郡新北面猪津里 酒造業 海産物貿易 邊百萬

高城邑內 日鮮農工具製造建築金物販賣業 高城鐵工所 柳道濟

高城邑內 張明俊 電話二二番

高城郡教育會

高城面條津里 高城酒造株式會社條津出張所直營 倉庫運送部 海陸物産 貿易委託 各種食料品製油造業 咸在鎬 電略(ヤマコ)

天安 天安邑內市場 衛生理髮館 主 李義植 技師 劉順明

歲豊釀造場

仁濟醫院長 尹鎭國 本院 仁川府龍岡里 分院 天安本町通

高城條津 海陸物産貿易委託 漁業組合指定仲買人 張佑坤商店 電略(ハイ)又ハ(ㅐ) 私書函高城六番

高城條津 海陸物産委託貿易 東明商會 代表者 金魯元 私書函高城二番

高城邑內 日華生命保險株式會社 金剛山代理店 司法代書 崔龍富

新北面 黃永尉 姜淳弼 李鍾海

杆城金融組合 理事 金鷗培

江原道會議員 松村繁朶 電話二一番

高城面職員一同 電話一二番

高城面條津里 朴來潤

水洞公立普通學校

水洞面職員一同

高城漁業組合長 咸子逸

高城郡廳 電話四番

高城警察署 電話三四番

高城邑內 綢緞布木各種雜貨 張時中

吉乃運送店 天安郡天安邑內里一八七番地 電話六八番

京釜線天安驛前 天安荷主組合運送店 主 … 電話二六番

天安邑笠場面道林里 普德釀造場 主 …

訓民正音의起源과 世宗大王의頒布 (四)

權悳奎

世 宗님겸의 英哲明知한聖裁下에 바로잡힌訓民正音이얼마 行하지못하고 俗行의諺文으로 다시돌아간것은 이미前回에 말하얏거니와 訓蒙字會의 凡例에 니른바 俗所謂反切——곧諺文은 겨우諺文곧反切」 名稱으로 流行되어 무릇 訓蒙字會의 번역된 冊名도 飜譯무슨經, 飜譯무슨書, 하지아니하고 七書諺解(中宗朝)以後 무슨諺解, 무슨諺解하야 四百年을 나려왓으니 所謂 諺文이란名稱과 諺解란稱號가 굳어지기는 정말 崔世珍으로부터이다 여기에 딿아 말할것은

字 會凡例에 諺文ㅣ俗所謂反切하야 諺文으로 主를한까닭에 무릇官文書나 冊名에, 諺이란字는 冠書하야도 反切이란니름은 없지 아니한故로 教科書 처럼된 諺文張에는 反切이란 니름을 쓰었으되 다른때에는 없어서 婦女子나 所謂無識階級—곧文盲들外에는 反切이란말을 넙에 오르나리지 아니하얏다 이反切이란말에 對하야 崔世珍을 그著四聲通解凡例二十六條中에 反切— 곧 飜切之式、古有門法立成等局不相通融、雖老師大儒、鮮能通解也……今撰通解、只著諺文、不取反切也」 라하야 漢字音에 다면諺文을 달고 反切을 쓰지아니함을말하얏다 崔世珍의말한바 녯反切法은어떠하얏고 그어려운程度가얼마나 하얏는지 모르되

普 通의反切法은 上字의上半聲을떼고 下字의下半聲을떼어合하야 한소리를만드는 것으로 漢字와같이 聲音으로되지아니한 聲音字로 音을表할수 없는 所謂漢字에나 쓸것이지聲音文字더욱 音標文字에는 可當치아니하니까 崔氏가 漢字音을 諺文으로 달고 反切로달지않는다 한것이 依例이다

이럼으로하야 諺文을 俗所謂反切이라 하는버릇은 많이減하야진것이다

그러하면 다시 訓民 正音은 諺文이라 하는數보다도 오히려 적어진것이 訓蒙字會따문인데 이것은 먼저도 말한바와같이 字會의著者崔氏,한사람의허물이 아니요 時代의허물이겠지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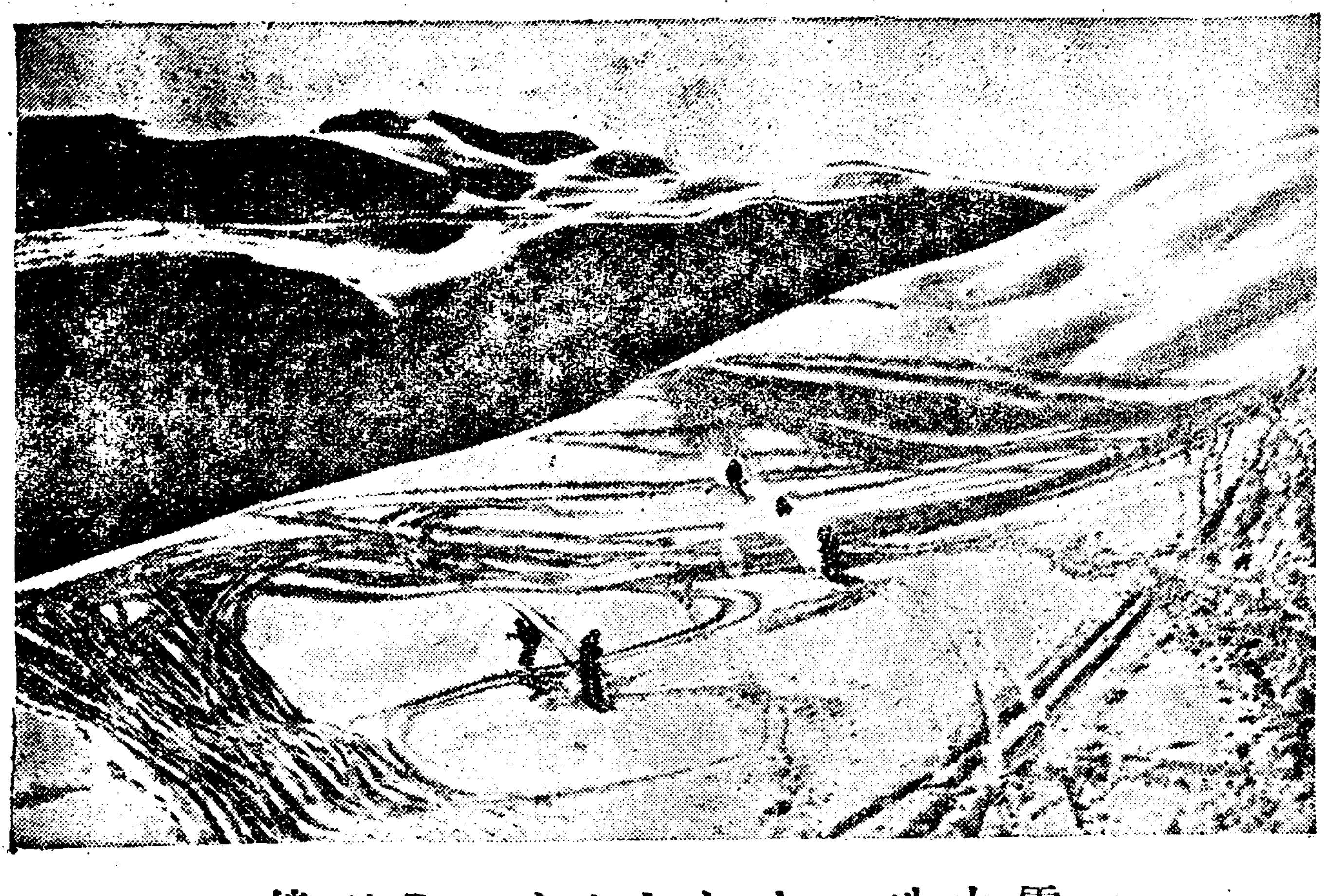
正 音綴字法에 對하야 내가疑心하는바 正音이 암만하야도 舊來의俗用의 習慣綴은 가루나 혹나리의 一方의法인듯한데 崔氏가 또한漢學者類의 一分인까닭에 漢字의方形式을 딿아 正音의 綴字式그대로 (矣)는것같은것은 퍽생각할 問題이니 한二三百年前에 저日本서 發見되었다는 神代文字가 正音字와 똑같은것으로 조선으로서 옮겨 가았느니 아니니하야 學者間에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 自己들도 否認한것이지마는 나는 이에對하야 그것이그곧神代로부터 나려오고아니고는 相關할것없이 그綴音式 綴字가 똑같은正音字가 가루혹나리로 一方의法에 限되얏음을보면 本源의돌아간대가 있는것을짐작하야

舊 來의俗用字ㅣ곧諺文이가로혹나리로만 綴成하지않았음가 생각함에 한補助가될다 하는것이다 舊아 내가 年前에도 發布한 朴殷植, 金秉濟, 金澤榮들의 조선글이 上古부터 있는것으로 그創造者가누구니 누구니 한것을 反駁하야 는 다먼그조선글이 上古로부터 있었다는點만은 自古로 傳하든 말로 그들도 들은바가 있음을 짐작하야 創造者의 누구누구라는 말들은 取치아니하야도 이미正音前부터 行하든文字라는말은 또한 取하는바이다

그러한데 대처訓民正音에 對하야 여러가지로 궁궁한것은原本의正音을 열어보지못하는것이니 위선只今의

訓 民正音의 原本이라고떠드는것이 두가지로『이것이 그것이니, 이것이 은것이니, 돈까지들여가며 야단이자 마는 訓民正音의字數가 二十八字라分明하하얏는데 原本이라고떠들수에는 웨二十八字가 더되는가 그러면 몇字가더있는가 崔世珍의 四聲通解下後附錄에 音當時의 妹實者로 遼東을 ... 단이드뭇 헤가며 滿洲, 支那東古의 音韻, 觀法을 調査하며 整理하기에 心身을 받이고 난기지아니한 申叔舟의 四聲通攷凡例가있으며 이凡例의一條에 我國齒聲ㅅㅈㅊ, 在齒頭整齒之間, 於訓民正音, 無齒頭整齒之別, 今以齒頭、爲 (외쪽긴ㅅㅈㅊ), 以正齒爲 (바른쪽긴ㅅㅈㅊ), 以別之 라하얏는데 이제그原本이란正音冊에는 申叔舟같은이가 『訓民正音에는 없다』한

齒 頭整齒의 여섯字가 잇으니 (辭釋音은 말고도)이것은 어찌解釋할것인가 原本이란本들이 頒佈當時의 原本이아니라 뒤의板本으로 첫머리에 世宗御製란文字나 御製에曰字나 곧의齒頭,整齒字를 더하얏으나가 모다뒤에『맨들어봉고, 더하고』한것으로 原本이아닌것은 말할것도없다 그러면 訓民正音ㅣ곧소선말音에는 整齒가 없다는말이다 한것이아닌가 하겟지마는 그도그렇나못할것이 그아레에 今以齒頭、爲ㅣ、以整齒爲ㅣ以別之의의마다어찌解釋할것이랴 아무든지 訓民正音原本을 못보았나 訓民正音에 對하야는 다시 히니아기할때가 있으려니와 나는 訓民正音原本을 보았으면 좋겟다



雪山에그려진『스키ㅣ』의線

朝鮮劇文化樹立途程 (3)

咸大勳

女人劇과其他

이러한 朝鮮演劇界의 講師가운데 가장異彩가 잇는것은 女人으로서만 組織된女子基督의 一女人劇이다 이것은第一回公演이라하엿스니 今後繼續하야 公演이 잇슬것을期待하거니와 이는朝鮮演劇運動에잇서서 한개의異彩다 하지안흘수업다 이는女子基督의멤버ㅣ가거의 梨花女專文科出身을 中心으로 特히 毛允淑 盧天命等諸氏의

活動 으로 이處女公演이 잇게되엿거니와 上演된劇本은『입센』作『幽靈』으로 이는 徐恒錫譯 洪海星演出로써 六月 京城公會堂에서 公演하엿다 이演劇은純全히女子로써 公演하엿슴에 不拘하고 相當한 成果를 나타내엿다

이것으로 大槪 昨年一年間의 劇壇을 回顧하는同時 今年의劇界가 如何한 方向으로 나아갈것과 또 今年 如何한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것을 論述하엿다고 본다

如何튼 演劇文化도 다른 文化와가치 一時的으로 그文化程度가 上昇하는것이 안인것이오 不行한 努力과

眞實 한 硏究를 싸하가는 동안에 이땅의 劇文化의꼿은 필것이라고 생각한다 눈을돌려 露西亞의 硏劇文化樹立의 途程을보드라도『스타니스랍흐스키』와『단첸코』演劇者와 財產家의참된結合에서모스코바藝術座의 誕生을보아 거긔참된劇藝術의 꼿이피엇고 佛蘭西에잇서도『앙드레·앙토와ㅣ느』가 처음은 어떤俱樂部의 一室을 빌어 處女公演을한뒤에 또한『앙토와ㅣ느』座를 建設하야 佛蘭西劇文化樹立에 커다란힘이된것은 누구나 아는事實이지만 이와가티 劇文化는 참된 劇作家와、演出家 事業家의 結託으로써 오랜歷史를 가지고 進展되는것이니 朝鮮演劇運動에 잇서서도 이는 等閑視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朝鮮人經營의 劇團을爲한

劇場 이一個도업스니이는 朝鮮演劇運動에 커다란 悲哀요 또 劇文化樹立에 적지안흔苦痛인것이다

그다음으로 劇運動에苦痛으로써 一言할것은朝鮮에는 上演할劇本을 쓰는劇作家가 거이업다는것이다 柳致眞君이 오즉 몃편의戲曲을 發表하얏슬뿐 其外의 諸作家의劇本은 上演하기에는 넘우나 劇的構成이 不足한것이다

조흔 劇本이 업시 조흔演劇이 生産될수 업는것은 거이常識化된 말이어니와 참된 朝鮮의 演劇文化를 建設하기 爲해서는 朝鮮의劇作家여 좀더 健鬪하여야할것이다

이제 昨年一年間에 發表된

劇本 으로 李恒雨作『人間漫畵』一幕 金永壽作『狂風』一幕、李泰俊作『어머니』一幕 朴花城作『일흔일곱의정』一幕 蔡萬植作『빈대떡』一幕、李石薰作『그女子의地獄』一幕 李無影作『毒스토이』等이잇스나 넘우도 舞臺를 無視한것이기대문에 上演할수가업는것이퍽은 遺憾이다 이는 劇作家가좀더 外國의優秀한 戲曲에서 그榮養을 攝取하고 또 舞臺에對한 智識을 넓혀 이現實朝鮮에서 그조흔素材를 가지고 劇本을 써주기를 바라는바이다

小說보다도 劇本은 그形式과條件이 좀더 複雜하니만큼 또읽기爲한것이아니요

上演 하는것이니만큼그만한 撮備智識을 갓지못하고는 到底히 쓸수업는것이다 그러므로 劇本이해에잇서서는 단한편에 이나마 上演할戲曲을 生産할것과또 外國劇文學研究者는 上演될만한劇本을 좀더 多量으로飜譯하여 演劇生産에잇서서 劇本不足의 困難이 업도록 努力해주시기를 바라는바이다

이리하여 演劇의遺産을 갖지못한 朝鮮劇界에 참된 劇文化의 꼿이되게 하도록 努力하기를 바라마지안는바이다

『藝術은길고 生命은짧다!』하는 이一言의 警句로써 이글을 끗맺는同時 좀더 이해부터는 演劇生産의 繁榮이 잇기를 비는바이다 (完)

텔레비존의大發明

桑港에서사는一靑年이 지금의류ㅣ브보담九千倍擴大力

텔레비존은 目下世界科學界의 中心題目의하나로서, 各國이다ㅣ그實用化를硏究하고잇는바 요즈음米國에서新型의陰極류ㅣ브가 發明되어텔레비放送局은 가까운將來에잇서서놀랄만하게 發達되고放送라디오界에는 全然새로운分野가建設되리라고豫言하엿다

이陰極류ㅣ브의發明家는 桑港에사는 프로이 판ㅣ즈 워ㅣ스라는二十八歲의 靑年으로 텔레비陰極線界의 開拓者, 最近桑港과뉴ㅣ욕, 호놀룰루, 마니라間에이陰極류ㅣ브를使用하야 放送의實驗을行하게 되여 大成功을어덧다.

이류ㅣ브는 在來라디오의 振動子에쓰는 류ㅣ브와는 全然다르다 即이류ㅣ브는 在來의것과달라서 그릿드又는 퓌라멘트가全然업다 이류ㅣ브의壽命은 全혀無限이다。왜그러냐하면 이류ㅣ브에는 解體又는消耗될만한 部分이하나도 업는것이요 이류ㅣ브는 現在의류ㅣ브보담도 훨신싸게될수잇다한다。

또한이류ㅣ브는 現在까지發明되엿든 그어떠한류ㅣ브보담도 約九千培大의 擴大力을가지고잇다한다。

깝이잇서서 자미잇섯다「도ㅣ란」은아니지만 東實言語라고하는것은 言語의根元이며 다마자람은 그近似値에 滿足할박게업는것인지도모른다 한사람의입을通하야 나오는가튼말이 그時間의差異로부터 意味가달려지는 條蝶의條조차 發見한다 對話와가치 그때그때의 語調의抑揚이나 表情動作의 補助가업시다만 文字로나타난言語를 그素材로쓰는詩의 飜譯에잇서서거진機械的인 數學的

正 確을求하는것은 求하는편이잘못이다 여기에飜譯의 한限界가잇는것이 事實이다 그러타고 해서 飜譯은 飜譯이면서도 譯者가 想을除한外에는 맘대로해도조타는 口實을提供할것갓지는안타

不得已한限界의範圍안에서도 그韻律 音調 雰圍氣 情調等에잇서서 飜譯으로서의可能性은 더넓은것이 잇슬가한다 그산例로는 氏의譯詩集『懊惱의舞蹈』는적어도 今番의『忘憂草』처럼 그러케單調로운것은아니엿스며 거기는各原作者를따라서 어느程度의必要한多樣性이 發現되것을구경하엿다

나는 氏의譯詩論이 때때로氏의

飜 譯者로서의 才能을스스로 죽이는 조치못한結果를 가저오지나안흘까 念慮한다

『에즈라파운드』는 詩를 音響만을 追求하는詩와 影像과意味를 追求하는詩의세部類로 난호고 前者만은 譯이 不可能하다고하엿고 뒤의兩者는 可能하다고하엿다 體系化한 譯詩論은아닐지라도 아울러 參考할點이만타고 생각한다

그런데 氏의 飜譯不可能論은 詩學的으로는 討究의 餘地가 만흐나 에도 不拘하고 恒常言語를 주물르는 詩人으로서 言語의宿命과 限界에대한 한絕望的인 自覺에서 나온것이라고 생각할때 우리는 우리

自 身을 反省하지 안코는 못견되다。即 氏는 言語라는것의 그微妙한作用과 變化에대하야 詩人인까닭에 거기서 發見하고는 言語그 無限한神秘조차를 드되어 飜譯不可能의 結論에까지 到達한것이다

言語에의 自覺과 把握——그것은 詩人의 最初의 修業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言語를無視한 生硬한 詩想의 素材를그대로詩라고 생각하는 原始的인思考는 무슨까닭에 아직까지도 文學人들속에 조차 남어잇슬가?

이박게 내가 記憶하는 限度안에서는 韓黑鷗氏가 亦是『中央日報』에『現代詩人의哲學的硏究』를

發 表하야 朝鮮新詩史上의 先驅者의면모에 대한硏究의 一端을보여주엇다

韓氏의 前記論文은 좀더哲學과 思想의槪念이 明確히區別되엿드면 그리고 現實主義와理想主義라는너무나單純한 두「카테고리」에만 비추어보지말고 各各의詩人의思想이라든지「哲學」을그自體의 特性에依하야 發見하야보여주엇스면하는希望을가지게하엿다

도한 現代詩人의 哲學的硏究(事實은思想의硏究)이면서도

現 代의意味가 明瞭하지못하엿고 各詩人의 時代的差異 特徵等을 區別업시論한것은 우리로하여금 理解하기어렵게맨는 혐의가잇섯다

또한이것은 純今한詩에대한것은아니지만 崔載瑞氏의 때때로發表한 現代英國文學의 生新한 理論的 方面의 紹介는 詩壇에도 恒常적지아니한 조흔影響을 미첫다고생각한다

이種類의 外國의新文學과 그理論의輸入은 恒常 이따의文壇을 裨益하는일이크다고생각한다

우리는 古典의輸入 再吟味와아울러 우리와함께 現代를呼吸하는

外 國의 新文學의 理論과 實際에接하는일은 至極히必要한일이다 우리는 現代에 關心하는더만흔實한 外國文學者를 가지기를願한다

展望이라는題目을걸고回顧에만 려回를虛費햇다 이것으로써발서 讀者는 充分히 文離하게생각하엿슬줄안다

그럼으로 얼마동안쉬여가지고 展望의남은 짐을 마저풀려고한다 讀者의 寬大한 恕諒을빈다

新春의朝鮮詩壇 (四)

金起林

詩 에關한事件이나 問題로서는 그밧게 岸曙의譯詩集『忘憂草』의 出版과 아울러 氏의譯詩論이『中央日報』紙上에 發表된일이잇섯다。 氏의 譯詩論은 여러가지意味로자미잇섯다

氏는 結論으로서 飜譯不可能論을 主張하엿스며 나아가서는 嚴正한意味의客觀的飜譯은 잇서서는안된다는當爲論에까지 主張을發展시켯다

다만 可能한일은 原作者의想을 따서 譯者는그自信의것으로 創作할수박게업스며 또한그리하여야한다는것이다

氏의

譯 詩와함께읽어보면 그譯詩論은「一樣化한」氏의 譯詩를 合理化한데지나지안는다

朝鮮文學의再建設

外國文學輸入의當面性과 外國文學紹介의態度

曺希醇

朝 鮮文學의 建設策의하나로 筆者는 外國文學輸入을 決코 看過치못할 重要한一要素로 主張하고십다。무릇 發生過程에잇는 一社會의文學이 成長함에 잇서서 完全히 外國과絕緣되여서 그自體만으로 獨特한成長을 遂行한例는 歷史的으로 證明할 수업는바이다。 獨逸에 文學다운文學이 發生되든時代 다시말하면 렛싱, 헬더ㅣ

時 代에잇서서 英國文學과 佛蘭西文學이 그얼마나 큰影響과 感化를 주엇든것이냐。 例를 露西亞에 든다면 표ㅣ틀大帝以後 비로소 國民文學이 建設될때에 바이론 리ㅣ례等의 끼친影響이 그얼마나 偉大하엿든것이냐。 도다시가까운 日本文壇을본다면 明治時代에잇서서 英米文學의輸入을 비롯하야 露西亞의文豪를 톨스토이、도스토에프스키ㅣ、투게네ㅣ흐等의作品乃至는 森鷗外로因하야 輸入紹介된 獨逸文學等이 日本文壇의 決定的營養分이되고 또

刺 戟材가 되것을 어느누가 否定할수잇슬가。그러면 外國文學輸入은 이와가티 그發興期에 잇서서만 必要하고 安當한것일가. 아니、筆者는 서슴지안코 外國文學輸入은 그發興期뿐만이아니라 健全한 充實한 文壇을 形成함에잇서서 恒常不可缺한것이라고 主張한다 너무나 貧弱한 우리文壇——대단히 섭섭한일이지마는——으로서는 外國文學을 輸入하지안흐면안될 現實에 面하고잇다。

優 秀한 外國文學을 輸入해서 正當한理解아래 우리의營養分으로하고 우리의刺戟材로해야될것이다。우리가 가진바 一의世界的作品이업고 一의世界的

文學論이업는以上 우리는 우리것을 보담 優秀한 作品과 文學理論을輸入하는데 무슨 理論과 무슨 詩論가 必要할것인가。正當한理解아래 優秀한 外國文學을輸入하는것은 우리文學의 視野를 넓게하는 우리文壇自體의發義되며 다시말하면 우리文壇의 世界的일만큼 우리는 到底히 우리文學이建設된다할지라도 恒常進步하야마지안는 世界的程度로 우리文學이建設된다

水 準을올히는 가장有力한 契因이 되는것이다。 또 一目相當한程度로 우리文學이 建設된다 할지라도 恒常進步하야마지안는 世界的일만큼 우리는 到底히 우리것만으로 從容饒足할수업는것이며、恒常 優秀한 外國文學을輸入하야 消化해야할것이 다。近分하게 正當하게理解하고 充日 만흔자리에서 創作活動이 업고 外國文學紹介에만 汲汲하을 따라서 또 外國文學의

模 倣에急急하는 傾斂하는 소리를 듯는다。그러나 筆者는現朝鮮文壇을볼때에、또 先進國의 例를볼때에 오히려 創作活動을 一時斷念하고 專心專力 外國文學만을輸入하는學徒가 잇서야할

主張하는者이다。이러라고 해서 創作을從으로 外國文學을 主로 라는意味는 絕對로아니며 各各獨立한部內에 團해야할것이 다。即 創作專門하는 者는創作을 外國文學輸入을 目標하는 者는 外國文學紹介를 專心해야할 義務가 잇는 時期라고 본다 것이다。特히 現階段의우리文壇으로는 明日의 健實한文壇을것 기爲하야外國文學輸入의當面性을

力 說하는바이다。그러고또 外國文學輸入은 絕對로 外國文學模倣을意味하는것이아니라。우리社會——다른社會와는 決定的으로 判異한우리社會 우리네에 계만 흐르는 우리피를 가진以上 外國文學을輸入하더래도 반드시 우리社會 우리피를 通過하는동안에 充分히消化되고 淨化되여서 結局 그것은 우리가가진 獨特한 우리것을 完成함에 一의거름 一의營養素가될것이다 반드시

論 議될問題가 잇스니 그것은 即 外國文學紹介의 態度이다。우리의 새로운文學이提唱되지 그歷史가길지안흐며 또外國文學作品의紹介가 不過數十個에不過한데그나마 그紹介된作品이 外國文學紹介者로서의 良心으로써 紹介된것이 全部라고하기어려운現象을볼때에 外國文學을輸入할때의態度가 重且大한것을 다시금안니길수업는것이다

正 當한理解아래 充分한硏究心을가지고 紹介하여야할 外國文學紹介者의 責任과 義務는 決코 輕하고 疏忽한것이아니다 讀者를迷蒙식히지안흘 朝鮮文壇을 侮辱하지안흘 良心잇고 責任잇는 外國文學紹介는 오직 外國文學을 紹介할能力과 硏究心이잇는者에게만 賦與된 權利行使가 아니면안될것이다

明 日의光輝잇슬우리文壇을 建設코저하는熱誠으로 다시 外國文學輸入의 當面性을 力說하는同時에 良心잇고 責任잇는外國文學紹介의出現을 熱望하는바이다。

新刊紹介

▲新文學· 新年創刊號 東萊溫泉場 新文學社發行 定價二十錢

▲朝鮮鐵道協會會誌· 一月號 京城府古市町一四ノ一三 朝鮮鐵道協會發行 振替京城一一〇三八番 定價五十錢

▲國際觀光· 一月號 鐵道省國際觀光局內 國際觀光協會 發行 定價三十錢

▲新人間· 新年號 京城府慶雲洞八八 新人間社發行 振替京城一〇一番 定價十錢

▲危機に立つ東京市政· 東京市麴町區內幸町一ノ六 經綸會出版部發行 定價十錢

▲朝鮮鐵道一班· 昭和十年度 京城府古市町一四ノ一三 朝鮮鐵道協會發行 振替京城一一〇三八番 定價五十錢

咸陽 三一産業株式會社

咸陽 盧俊泳 朴奎錫

咸陽郡廳 許萬正

咸陽釀造場 主 盧永寅

晋州邑本町 金斗台

大成株式會社 咸陽面下洞 尹達鉉 咸陽郡池谷面介坪里

元準玉

咸陽下洞 東洋寫眞館

咸陽郡池谷面職員一同

咸陽郡池谷面介坪里 鄭淳文

咸陽郡池谷面介坪里 鄭淳八

咸陽郡池谷面倉坪里 姜庸熙

咸陽郡安義 崔琵永

淸水佐太郎

咸陽邑內 慶一自働車部 鄭殷相

晋州 晋州郵便局長

晋州邑榮町 三井物産株式會社特約店 河萬漢商店 電話一五二番 振替釜山三三八五番

晋州郡農會

金琪部

晋州朝鮮酒酒造組合

晋州邑東風町 晋州麯子製造販賣組合

晋州釀造合資會社 電話二〇七番

晋州實業春秋會

晋州邑明治町 苗木勝岩農園 主 許旭

晋州邑義萊町 徐相弼

晋州邑 三二商會 鄭大和

晋州邑南山町 鄭杓煥

鄭宗明

綿絲綿布繝緞雜貨卸商 洪成允商店 電話四二番

望月旅館

文山面職員一同

晋州邑榮町 三三堂樂器店 主 金壽龍 電話二四七番

株式會社 長尾商會 電話一二五八番

川上精米所 川上貨物自動車部

文山朝鮮酒製造場 角谷槌五郎

晋州妓生券番 電話二五〇番

和洋料理 都亭 電話一七番

晋州邑東風町 中華料理 群賢館 電話二〇九番

晋州第一公立普通學校學父兄會

朝鮮晋州榮町 圖書文具百貨 崧南書舘 電話二四番

晋州郡晋州邑榮町一一三 共濟醫院 公醫 金洋奎 電話二四二番

綢緞洋品綿紗雜貨 千鍾煥商店 電話一五一番

慶南晋州錦町 月星洋服店 金宰根

晋州酒造株式會社 電話六八番

鄭台範

鄭秀錫精米所 電話三八番

晋州邑水晶町 朝鮮料理 京城舘 電話二四三番

金翰文

千錫大 電話一七五番

晋州邑日出町 シンガミシン會社 主任 金又水

晋州邑榮町 和洋諸紙各種印刷 晋陽堂印刷所 電話一五八番

文山郵便所 所長 鍵波末雄

訓民正音의起源과 世宗大王의頒布 (四)

權悳奎

世 宗대왕의 英哲明知한聖裁下에 바르잡한訓民正音이얼마 行하지못하고 俗行의諺文으로 다시돌아간것은 이미前回에 말하얏거니와 訓蒙字會의 凡例에 니른바 俗所謂 反切―곧諺文은 겨우諺文곧反切이 名稱으로 流行되어 무릇諺書籍의 번역된 冊名도 飜譯무슨經、飜譯무슨書、하지아니하고 七書諺解(中宗朝)以後 무슨諺解、무슨諺解하야 四百年을 나려왓으니 所謂 諺文이란名稱과 諺解란稱號가 굳어지기는 정말崔世珍으로부터이다 여기에뚫아말할것은

字 會凡例에 諺文―俗所謂反切하야 諺文으로 主를한까닭에 무릇官文書나 冊名에、諺이란字는 冠書하야도 反切이란니름은 없지 아니한故로 敎科書 처럼된 諺文張에는 反切이란 니름을 쓰엇으되 다른때에는 없어서 婦女子나 所謂無識階級―곧文盲을外에는 反切이란말을 님에 오르나리지 아니하얏다 이反切이란말에 對하야 崔世珍을 그著四聲通解凡例二十六條中에 反切―곧 飜切之式、古有門法立成等局不相通融、雖老師大儒、鮮能通解也……今撰通解、只著諺文、不取反切也라하야 漢字音에 다만諺文을 달고 反切을 쓰지아니함을말하얏다 崔世珍의말한바 녯反切法은어떠하얏고 그어려운程度가얼마나하얏는지 모르되

普 通의反切法은 上字의上半聲을떼고 下字의下半聲을떼어合하야 한소리를만드는것으로 漢字와같이 聲音으로되지아니한 聲音字로 音을表할수없는 所謂漢字에나 쓸것이지聲音文字더욱 音標文字에는 可當치아니하니까 崔氏가 漢字音을諺文으로 달고 反切로달지않는다 한것이 依例이다

이럼으로하야 諺文을 俗所謂反切이라 하는버릇은 많이減하야진것이다

그리하면 다시 訓民 正音은諺文이라 하는數보다도 오히려적어진것이 訓蒙字會따문인데 이것은 먼저도 말한바와같이 字會의著者崔氏、한사람의허물이 아니요 時代의허물이겟지마는

正 音綴字法에 對하야 내가疑心하는바 正音이암만하야도 舊來의俗用의 習慣線은 가루나 혹나리의 一方의法인듯한데 崔氏가 도한漢學者類의 一分인까닭에 漢字의方形式을 따아 正音의 綴字式그대로좇는것같은것은 한번생각할 問題이니 한二三百年前에 저日本서發見되었다는 神代文字가 正音字와 똑같은것으로 조선으로서옮겨 가앗느니 아니니하야 學者間에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自己들도 否認한것이지마는 나는 이에對하야 그것이그곧神代로부터 나려오고아니고는 相關할것없이 그綴音式 綴字가 똑같은正音字가 가루흑나리로 一方의法에 限되었음을보면 本源의돌아간대가 있음것을짐작하야

舊 來의俗用字―곧吏文이가르흑나리로만 綴成하지않앗음가 생각함에 한補助가된다 하는것이다 밝아 내가 年前에도 發布한 朴殷植、金秉薰、金澤榮들의 조선글이 上古부터 있는것으로 그創造者가누구니 누구니 한것을 反駁하야그考證의짙것까지밝히엇지마는 다만그조선글이 上古로부터있엇다는點만은 自古로 傳하든말로 그들도 들은바가 있음을짐작하야 創造者의 누구누구라는 말들은 取치아니하야도 이미正音前부터 行하든文字라는말은 도한 取하는바이다

그러한데 대저訓民正音에 對하야 여러가지로 궁궁한것은原本의正音을 엳어보지못하는것이니 위선只今의

訓 民正音의 原本이라고떠드는것이 두가지로『이것이 그것이니、이것이 은것이니、돈까지들여가며 아닌이자마는 訓民正音의字數가 二十八字라分明히하얏는데 原本이라그冊字數에는 웨二十八字가 더되는가 그러면 몇字가더잇는가 崔世珍의 四聲通解下卷附錄에 正音當時의 黃瓚者로 遼東을 門단이듯 헤가며 滿洲、支那 客東音의 音韻、語法을 調査하며整理하기에 心身을 밟히고 남기지아니한 申叔舟의 四聲通攷凡例가있으며 이凡例의一節에

我國齒聲ㅅㅈㅊ、在齒頭整齒之間、於訓民正音、無齒頭整齒之別、今以齒頭、爲(외쪽긴ㅅㅈㅊ、以正齒爲(바른쪽긴ㅅㅈㅊ、以別之

라하얏는데 이제그原本이란冊에는 申叔舟말은이가『訓民正音에는 없다』한

齒 頭整齒의 여섯字가잇으니 (解釋音은 말고도)이것은 어찌解釋할것인가 原本이란本들이 頒布當時의 그本이아니라 뒤의板本으로 첫머리에世宗御製란文字나 御製에日字나 곧의齒頭、整齒字를 더한것이나가 모다뒤에『맨들어봉고、더하고』한것으로 原本이아닌것은 말할것도없다 그러면 흠은訓民正音―곧소선말音에는 齒頭整齒가 없다는말이다 한것이아닌가 하겟지마는 그도그렇나못할것이 그아래에 今以齒頭、爲ㅣ、以整齒爲ㅣ以別之의마디는어찌解釋할것이랴 아무튼지 나는訓民正音原本을 못보았나 이訓民正音에 對하야는 다시 仔細히니아기할때가 있으려니와 나는 訓民正音原本을 보앗으면 참종것다

朝鮮劇文化樹立途程 (3)

咸大勳

女人劇과其他

이러한 朝鮮演劇界의 講師가운데 가장異彩가 잇는것은 女人으로써만 組織된女子基靑의 一女人劇이다、이것은第一回公演이라하엿스니 今後繼續하야 公演이 잇슬것을期待하거니와 이는朝鮮演劇運動에잇서서 한개의異彩다 하지안흘수업다、이는女子基靑의멤버ㅣ가거의 梨花女專文科出身을 中心으로 特히 毛允淑盧天命等諸氏의

活動 으로 이處女公演이잇게되엿거니와 上演된劇本으는입센作『幽靈』으로 이는 徐恒錫譯洪海星演出로써 六月 京城公會堂에서 公演하엿다 이演劇은純全히女子로써 公演하엿슴에 不拘하고 相當한 成果를 나타내엿다

이것으로 大槪 昨年一年間의劇壇을 回顧하는同時 今年의劇界가 如何한 方向으로 나아갈것과 또 今年 如何한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것을 論述하엿다고 본다

如何튼 演劇文化도 다른 文化와가치 一時的으로 그文化程度가 上昇하는것이 안인것이오不行한 努力과

眞實 한 硏究를 싸하가는 동안에 이땅의 劇文化의꼿은 필것이라고 생각한다 멀리눈을돌려 露西亞의 硏劇文化樹立의 途程을보드라도『스타니스랍흐스키』와『단첸코』演劇者와財産家의참된結合에서모스코바藝術座의 誕生을보아 거긔참된劇藝術의 꼿이피엇고 佛蘭西에잇서서도『앙드레・앙토와―느』가 처음은 어떤俱樂部의 一室을 빌어 處女公演을한뒤에 또한『앙토와―느』座를 建設하야 佛蘭西劇文化樹立에 커다란힘이된것은 누구나 아는事實이지만 이와가티 劇文化는 참된 劇作家、演出家 事業家의 結託으로써오랜歷史를 가지고 進展되는것이니 朝鮮演劇運動에 잇서서도이는 等閑視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朝鮮人經營의 劇團을爲한

劇場 이一個도업스니이는朝鮮演劇運動에 커다란 悲哀요 또 劇文化樹立에 적지안흔苦痛인것이다

그다음으로 劇運動에 苦痛으로써 一言할것은朝鮮에는 上演할劇本을 쓰는劇作家가 거이업다는것이다 柳致眞君이 오죽 몃편의戱曲을 發表하얏슬뿐 其外의 諸作家의劇本은 上演하기에는 넘우나 劇的構成이 不足한것이다

조흔 劇本이 업시 조흔演劇이 生産될수 업는것은 거이常識化된 말이어니와 참된 朝鮮의 演劇文化를 建設하기 爲해서는 朝鮮의劇作家여 좀더 健鬪하여야할것이다

劇本 으로 李恒南作『人間漫畵』一幕 金永壽作『狂風』一幕、李泰俊作『어머니』一幕 朴花城作『일흔봄』一幕 蔡萬植作『비에떠』一幕、李石薰作『그女子의地獄』一幕 李無影作『毒스토이』等이잇스나 넘우도 舞臺를 無視한것이기때문에 上演할수가업는것이 퍽은 遺憾이다 이는 劇作家가좀더 外國의優秀한 戱曲에서 그藥荅을 攝取하고 또 舞臺에對한 智識을 넓혀 이現實朝鮮에서 그조흔素材를 가지고劇本을 써주기를 바라는바이다

小說보다도 劇本은 그形式과條件이 좀더 複雜하니만큼 또엇기爲한것이아니요

上演 하는것이니만큼그만한擬備智識을 갓지못하고는 到底히 쓸수업는것이다 그러므로이해에잇서서는 단한편에 劇本이나마 上演할戱曲을 生産할것과또 外國劇文學研究者는 上演될만한劇本을 좀더 多量으로飜譯하여 演劇生産에잇서서 劇本不足의 困難이 업도록 努力해주시기를 바라는바이다

이리하여 演劇의遺産을 갓지못한 朝鮮劇界에 참된 劇文化의 꼿이되게 하도록 努力하기를 바라마지안는바이다

『藝術은길고 生命은짧다!』하는 이一言의 警句로써 이글을 끗맷는同時 좀더 이해부터는 演劇生産의 繁榮이 잇기를비는바이다 (끗)

텔레비손의大發明

桑港에서사는一青年이

지금의튜―브보담九千倍擴大力

텔레비손은 目下世界科學界의 中心題目의하나로서、各國이다―그實用化를硏究하고잇는바 요즈음米國에서新型의陰極튜―브가 發明되어텔레비放送局은 가까운將來에잇서서놀랄만하게發達되고라듸오界에는 全然새로운分野가建設되리라고推測하엿다

이陰極튜―브의發明家는 桑港에사는 프로이 판―즈워―스라는二十八歲의 青年으로 텔레비陰極界의 開拓者、最近桑港과뉴―욕― 호놀룰루、마닐라間에이陰極튜―브를使用하야放送의實驗이行하게 되여 大成功을어덧다

이튜―브는 在來라디오의 擴動子에쓰는 튜―브와는 全然다르다 即이튜―브는 在來의것과달라서 그럿트가는 뭐라면틀가全然없다 이튜―브의壽命은 全히無限이다。왜그러냐하면이튜―브中에는 解體또는消耗될만한 部分이하나도 업는것이요 이튜―브는 現在의튜―브보담도 훨신싸게될수잇다한다。또한이튜―브는 現在까지發明되엿든 그어떠한튜―브보담도約九千培大의 擴大力을가지고잇다한다。

新春의朝鮮詩壇 (四)

金起林

詩 에關聯한事件이나 問題로서는 그박게 岸曙의譯詩集『忘憂草』의 出版과아울러氏의譯詩論이『中央日報』紙上에發表될일이잇섯다。

氏의譯詩論은여러가지意味로자미잇섯다

氏는 結論으로서 飜譯不可能論을 主張하엿스며 나아가서는嚴正한意味의客觀的飜譯은 잇서서는안된다는當爲論에까지 主張을發展시켯다

다만 可能한일은 原作者의想을따서 譯者는그自信의것으로 創作할수박게업스며 또한그리하여야한다는것이다

氏의

譯 詩와함께읽어보면 그譯詩論은 一樣化한 氏의譯詩를 合理化한데지나지안는감이잇서서 자미잇섯다「詩・포에지―란」은아니지만 事實言語라고하는것은업는 義務의根元이며다마사람은 그近似値에 滿足할박게업는것인지도모른다

한사람의일을通하야 나오는가튼말이 그時間의差異로부터 意味가달러지는 條蝶의脈조차 發見한다

對話와가치 그때그때의 語調의抑揚이나 表情動作의 補助가업시다만 文字로나타난言語로 그素材로쓰는詩의 飜譯에잇서서거진機械的인 數學的

正 確을求하는것은 求하는편이잘못이다 여기에飜譯의 한限界가잇는것이 事實이다

그러타고 해서 飜譯은 飜譯이면서도 譯者가 想을除한外에는맘대로해도조타는 口實을提供할것갓지는안타

不得已한限界의範圍안에서도 그韻律 音響 雰圍氣 情調等에잇서서 飜譯으로서의可能性은 더넓은것이 잇슬가한다 그산例로는 氏의譯詩集『懊惱의舞蹈』는적어도 今番의『忘憂草』처럼 그러케單調로운것은아니엿스며 거기는各原作者를따라서 어느程度의必要한多樣性이 發現되것을구경하엿다

나는 氏의譯詩論이 때때로氏의

飜 譯者로서의才能을스스로 죽이는 조치못한結果를 가저오지나안흘까 念慮한다

『에즈라파운드』는 詩를 音響만을 追求하는詩와 影像과意味를 追求하는詩의세部類로 난호고 前者만은 譯이 不可能하다고하엿고 뒤의兩者는 可能하다고하엿다 體系化한 譯詩論으로넘지라도 아울러 參考할點이만타고 생각한다

그런데 氏의 飜譯不可能論은學的으로는 討究의 餘地가만흠에도 不拘하고 恒常言語를 주물르는 詩人으로서 言語의宿命과 限界에대한 한絶望的인 自歎에서 나온것이라고 생각할때우리는 우리

自 身을 反省하지 안코는못견듼다。

卽 氏는 言語라는것의 그微妙한作用과 變化에대하야 詩人인까닭에 無限한神秘조차를 드듸여 거기서 發見하고는 言語그것의 飜譯不可能의 結論에까지到達한것이다

言語에의 自覺과 把握―그것은 詩人의 最初의 修業이다그럼에도 不拘하고 言語를無視한生硬한 詩想의 素材를그대로詩라고 생각하는 原始的인思考들은 무슨까닭에 아직까지도 文學人들속에 조차 남어잇슬가?

이박게 내가 記憶하는 限度안에서는 韓黑鷗氏가 亦是『中央日報』에『現代詩人의哲學的研究』를

發 表하야 朝鮮新詩史上의先驅者의면모에 대한硏究의 一端을보여주엇다

이種類의 硏究는 今後더욱잇서야할것이며 朝鮮詩壇의過去는 이미硏究의 對象으로 充分히 여러개의題目을 품고잇다고생각한다

韓氏의 前記論文은 좀더哲學과思想의槪念이 明確히區別되엇드면그리고 現實主義와理想主義라는너무나單純한 두「카테고리」에만 비추어보지말고 各各의詩人의思想이라든지 哲學을그自體의特性에依하야 發見하야보여주엇스면하는希望을가지게하엿다

또한 現代詩人의 哲學的研究(事實은思想의研究)이면서도

現 代의意味가 明瞭하지못하엿고 各詩人의 時代的差異 特徵等을 區別업시論한것은 우리로하여금 理解하기어렵게맨는 협의가잇섯다

또한이것은 純全한詩에대한것은아니지만 崔載瑞氏의 때때로發表한 現代英國文學의 生新한理論的 方面의 紹介는 詩壇에도 恒常적지아니한 조흔影響을미첫다고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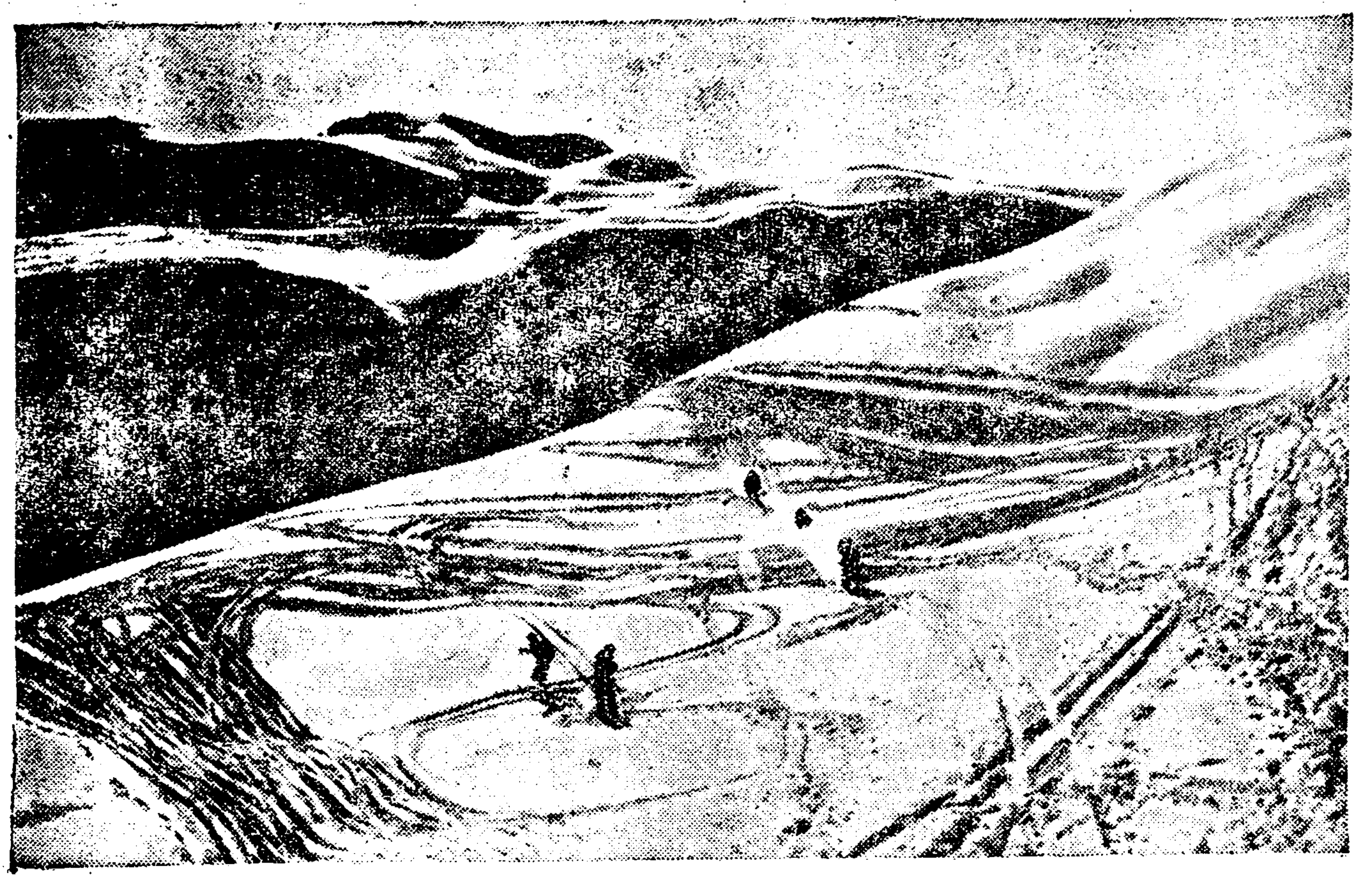
이種類의 外國의新文學과 그理論의輸入은 恒常 이따의文壇을刺戟하는일이크다고생각한다

우리는 古典의輸入 再吟味와아울러 우리와함께 現代를呼吸하는

外 國의 新文學의 理論과實際에 接하는일은 至極히 必要한일이다 우리는 現代에關心하는더만흔 忠實한 外國文學者를 가지기를願한다

展望이라는題目을걸고回顧에만머러버린것은 遺憾이다 이것으로써발서讀者는 充分히 文離하게생각하엿슬줄안다

그럼으로 얼마동안쉬어가지고 展望의남은 지음을 마저풀려고한다 讀者의 寬大한 恕諒을빕니다



雪山에그려진『스키―』의線

朝鮮文學의再建設

外國文學輸入의當面性과 外國文學紹介의態度

曺希醇

朝 鮮文學의 建設策의하나로 筆者는 外國文學輸入을 決코 看過치못할 重要한一要素로主張하고십다。무릇 發生過程에잇는 一社會의文學이 成長함에잇서서 完全히 外國과絕緣되여서 그自體만으로 獨特한成長을遂行한例는 歷史的으로 證明할수업는바이다。獨逸에 文學다운文學이 發生되든時代 다시말하면 렛싱、헬더―

時 代에잇서서 英國文學과佛蘭西文學이 그얼마나 큰影響과 感化를 주엇든것이냐。例를 露西亞에 든다면 표―틀大帝以後 비로소 國民文學이 建設될때에 바이론 리―레等等의끼친影響이 그얼마나 偉大하엿든것이냐。도다시가까운 日本文壇을본다면 明治時代에잇서서英米文學의輸入을 비롯하야 露西亞의文藝들 톨스토이、도스토에프스키―、투게네―흐等의作品乃至는 森鷗外로因하야 輸入紹介된 獨逸文學等이 日本文壇의決定的營養分이되고 또

刺 載材가 되것을 어느누가否定할수잇슬가 그러면 外國文學輸入은 이와가티 그發興期에잇서서만 必要하고 妥當한것일가 아니、筆者는 서슴지안코 外國文學輸入은 그發興期뿐만이아니라 健全한 充實한 文壇을形成함에잇서서 恒常不可缺한것이라고 主張한다 너무나 貧弱한우리文壇―대단히 섭섭한일이지마는―으로서는 外國文學을輸入하지안흐면안될 現實에 當面하고잇다。

優 秀한 外國文學을 輸入해서 正當한理解아래 우리의營養分으로하고 우리의創作材로해야될것이다。우리가 가진바 一의世界的作品이업고 一의世界的文藝論이업는以上 우리는 우리보담 優秀한 作品과 文學理論을輸入하는데 무슨 理論과 무슨 討議가 必要할것인가。正當한理解아래 優秀한 外國文學을輸入하는것은 우리文壇自體의敎養이되며 우리文學의視野를 넓게하는 다시말하면 우리文壇의

水 準을놉히는 가장有力한契因이 되는것이다。또 一旦相當한程度로 우리文學이建設되다할지라도 恒常進步하야마지안는世界인만큼 우리는 到底히 우리것만으로 從容鎭坐할수업는것이며、恒常 優秀한、外國文學을輸入하야 正當하게理解하고 充分하게 消化해야할것이 다。近日 만혼자리에서 創作活動이업고 外國文學紹介에만 汲汲함을따라서 또 外國文學의

模 倣에흐름을 慨歎하는소리를 듯는다。그러나 筆者는現朝鮮文壇을볼때에 또 先進國의例를들때에 오히려 創作活動을一時斷念하고 齋心專力 外國文學만을輸入하는學徒가 잇서야할것을 主張하는者이다。이러라고해서 創作을從으로 外國文學을主로 라는意味는 絶對로아니며各各獨立한部內에 關해야할것이다。卽 創作專門하는 者는創作을 外國文學輸入을 目標하는者는 外國文學紹介를 專心해야할義務가 잇는 時期라고 보는것이다。特히 現階段의우리文壇으로는 明日의 健實한文壇을갓기爲하야外國文學輸入의當面性을

力 說하는바이다。그러고또外國文學輸入은 絶對로 外國文學模倣을意味하는것이아니라。우리社會―다른社會와는 決定的으로 判異한우리社會 우리네에계만 호르는 우리피를 가진以上 外國文學을輸入하더래도 반드시 우리社會 우리피를 通過하는동안에 充分히消化되고 淨化되여서 結局 그것은 우리가가진 獨特한 우리것을 完成함에一의거름 一의營養素가될것이다

이와가치 切實한當面性을가진外國文學輸入問題에 附隨되어서반드시

論 歸된問題가 잇스니 그것은 卽 外國文學紹介의 態度이다。우리의 새로운文學이 提唱되지 그歷史가길지안흐며 또外國文學作品의紹介가 不過數十個에不過한데그나마 그紹介된作品이 外國文學紹介者로서의 良心으로써 紹介된것이 全部라고하기어려운現象을볼때에 外國文學을輸入할때의態度가 重且大한것을 다시금안느길수업는것이다

正 當한理解아래 充分한研究心을가지고 紹介하여야할 外國文學紹介者의 責任과 義務는決코 輕하고 疎忽한것이아니다 讀者를迷蒙식히지안흘 朝鮮文壇을 侮辱하지안흘 良心잇고 責任잇는 外國文學紹介는 오직外國文學을 紹介할能力과 研究心이잇는者에게만 賦與된 權利行使가 아니면안될것이다

明 日의光輝잇슬우리文壇을建設코저하는熱誠으로 다시 外國文學輸入의 當面性을 力說하는同時에 良心잇고 責任잇는外國文學紹介의續出을 熱望하는바이다。

新刊紹介

▲新文學・新年創刊號 東萊溫泉場 新文學社發行 定價二十錢

▲朝鮮鐵道協會會誌・一月號 京城府古市町一四ノ一三 朝鮮鐵道協會發行 振替京城一一〇三八番 定價五十錢

▲國際觀光・一月號 鐵道省國際觀光局內 國際觀光協會 發行 定價三十錢

▲新人間・新年號 京城府慶雲洞八八 新人間社發行 振替京城一〇一番 定價十錢

▲危機に立つ東京市政 東京市麴町區內幸町一ノ六 經綸會出版部發行 定價十錢

▲朝鮮鐵道一班 昭和十年度 京城府古市町一四ノ一三 朝鮮鐵道協會發行 振替京城一一〇三八番 定價五十錢

謹賀新年

咸陽 三一産業株式會社

咸陽 盧俊泳

咸陽郡廳

咸陽釀造場 主 盧永寅

咸陽面下洞 大成株式會社

咸陽下洞 東洋寫眞館

咸陽郡池谷面介坪里 尹達鉉

咸陽郡池谷面介坪里 鄭淳八

咸陽郡安義 崔基永

咸陽郡池谷面職員一同

咸陽郡池谷面介坪里 鄭淳文

咸陽郡池谷面倉坪里 姜庸熙

咸陽邑內 慶一自働車部 鄭殷相

晋州

晋州邑榮町 三井物産株式會社特約店 河萬濮商店 電話一五二番 振替釜山三三八五番

金琪部

晋州實業春秋會

晋州邑榮町 徐相弼

晋州邑南山町 鄭杓煥

鄭宗明

望月旅館

朴奎錫

許萬正

晋州邑本町 金斗台

元準玉

淸水佐太郞

晋州郵便局長

晋州郡農會

晋州朝鮮酒造組合

晋州邑東風町 晋州麯子製造販賣組合

晋州釀造合資會社 電話二〇七番

晋州邑明治町 苗木勝岩農園 主 許旭

晋州邑 三一商會 鄭大和

綿絲綿布綢緞雜貨卸商 洪成允商店 電話四二番

文山面職員一同

晋州邑榮町 三三堂樂器店 主 金壽龍 電話二四七番

株式會社 長尾商會 電話一二五八番

川上精米所 川上貨物自動車部

文山朝鮮酒製造場 角谷捷五郞

晋州妓生券番 電話二五〇番

和洋料理 都亭 電話一七番

晋州邑東蔵町 中華料理 群賢館 電話二〇九番

晋州第一公立普通學校學父兄會

朝鮮晋州榮町 圖書文具百貨 崧南書館 電話二四番

晋州郡晋州邑榮町一一三 共濟醫院 公醫 金洋奎 電話二四二番

綢緞洋品雜貨 千鍾煥商店 電話一五一番

慶南晋州錦町 月星洋服店 金宰根

晋州酒造株式會社 電話六八番

鄭台範

鄭秀錫精米所 電話三八番

晋州邑水晶町 朝鮮料理 京城館 電話二四三番

金甫文

千錫大 電話一七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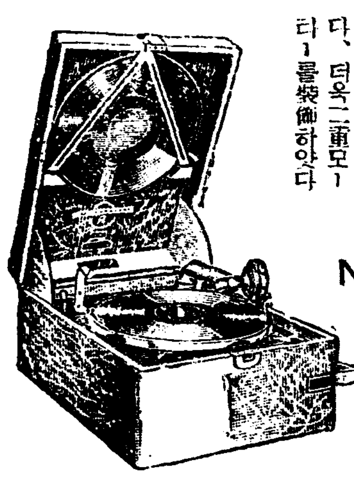
晋州邑日出町 シンガミシン會社 主任 金又水

晋州邑榮町 和洋諸紙各種印刷 晋陽堂印刷所 電話一五八番

文山郵便所 所長 姜末雄

コロムビアポータブル

音質
의굉장한것、從來의포타블의概念을一掃한相性器能이다、더욱二重모ー타ー를裝備하얏다



No. 212
¥55

音量
의부드러운것、고운것은本器의特色이다。耐熱性木製長音道裝備。

No. 109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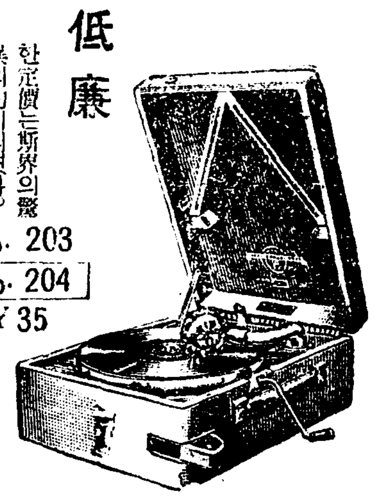
コロムビア蓄音器

Columbia

コロムビア蓄音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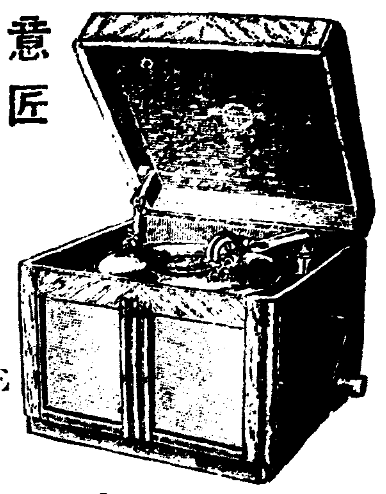
低廉
한定價는斯界의驚異의的이되엿다。性能의優秀한이價格으로서는絶對로他의追從을不許한바이다。

No. 203
No. 204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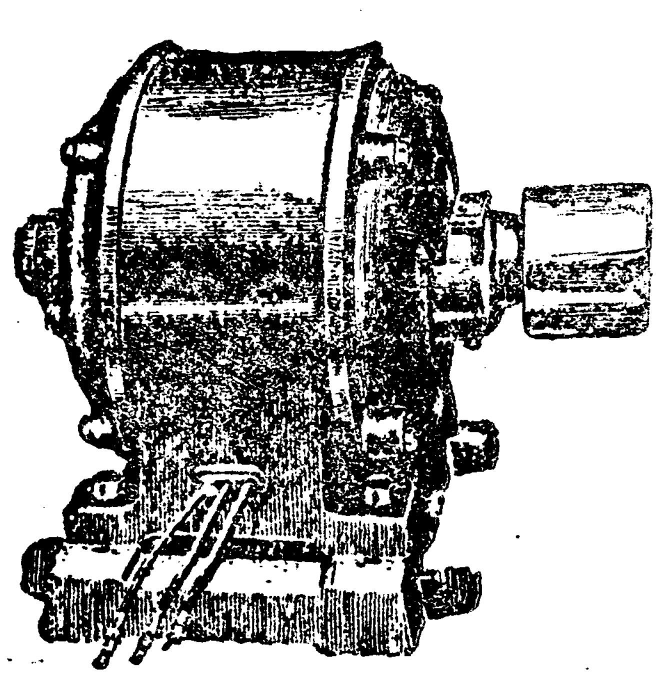
新發賣

意匠
의卓越한것뿐만안이라音質、音量은最高水準을表示하고잇다。一一七號는二重모ー타ー 一一七號E는電氣모ー타ー



No. 117
¥80
No. 117E
¥100

コロムビアポータブ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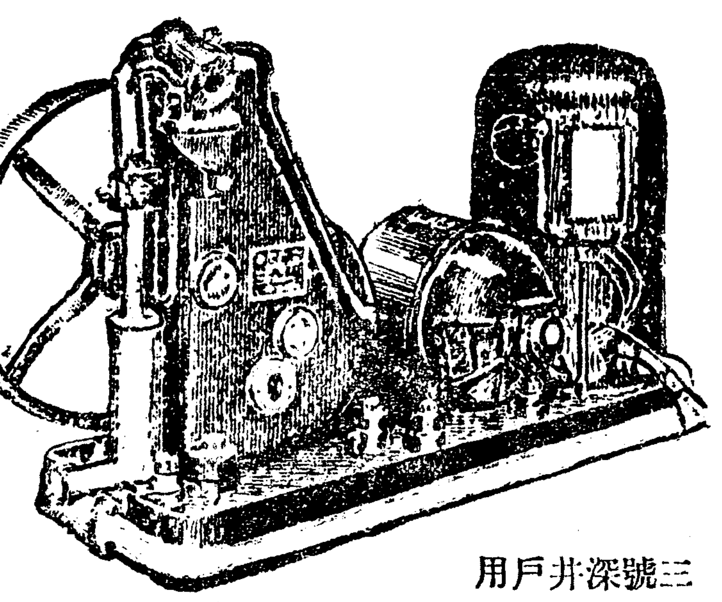
三馬力日立三相モートル

日立モートル

三相用
單相用
反撥起動式
分相起動式

日立電氣ポンプ

淺井戸用
壹号自動式
深井戸用
參号自動式
五号自動式
六号自動式



三號深井戸用
電氣ポンプ

札幌市南二條西十三丁目
大連市山縣通リ一六
京城府南山町二ノ三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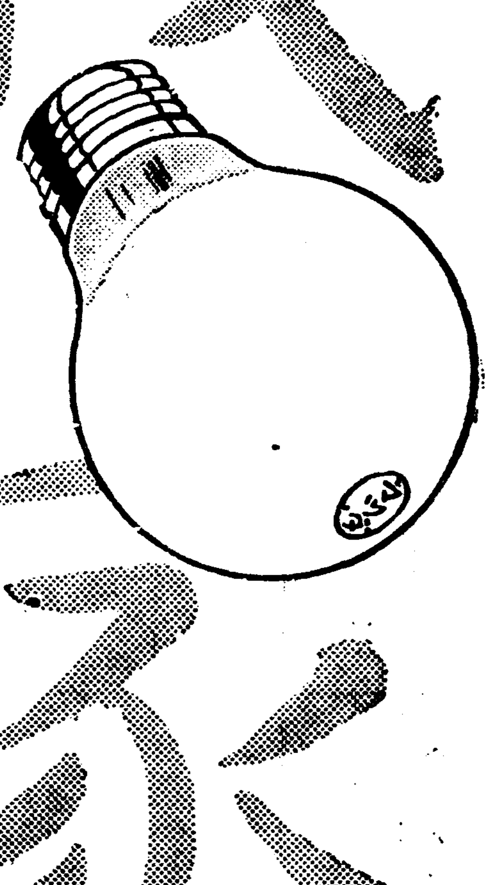
日立製作所

東京丸ノ内

大阪市西區土佐堀通一ノ一
福岡市博多片土居町四一
名古屋市新柳町六ノ三ノ一

謹賀新年

밝은 我家에



マツダランプ

製造元 東京電氣株式會社

恭祝萬祥

富士ブロマイド

부사부로마이도

富士ポートレート乾板

부사포ー도레ー도건판

富士寫眞フイルム株式會社

本社足柄・出張所東京・大阪

新發賣

コロムビアポータブ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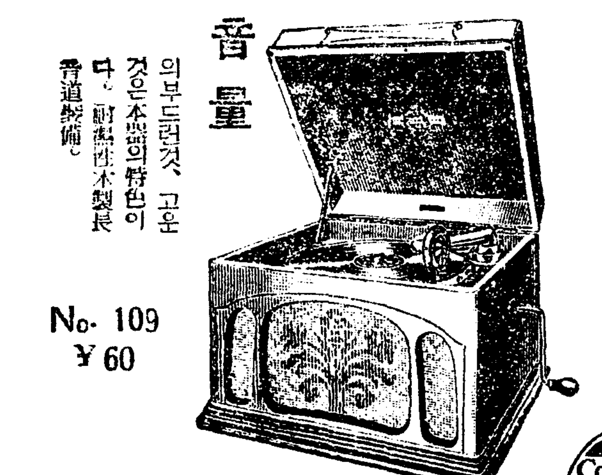
音質

의광장한것、從來의포타블의槪念을一掃한相性器能이다、더욱二重모ㅣ타ㅣ를裝備하얏다

No. 212
¥55

音量

의부드러운것、고운것은本器의特色이다。耐熱性木製長音道裝備。



No. 109
¥60

コロムビア蓄音器

Columbia

コロムビア蓄音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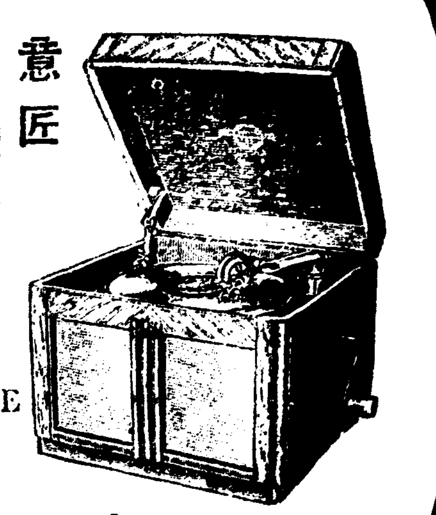
低廉

한定價는斯界의驚異의的이되엿다。性能의優秀한이價格으로서는絶對로他의追從을不許한바이다。

No. 203
No. 204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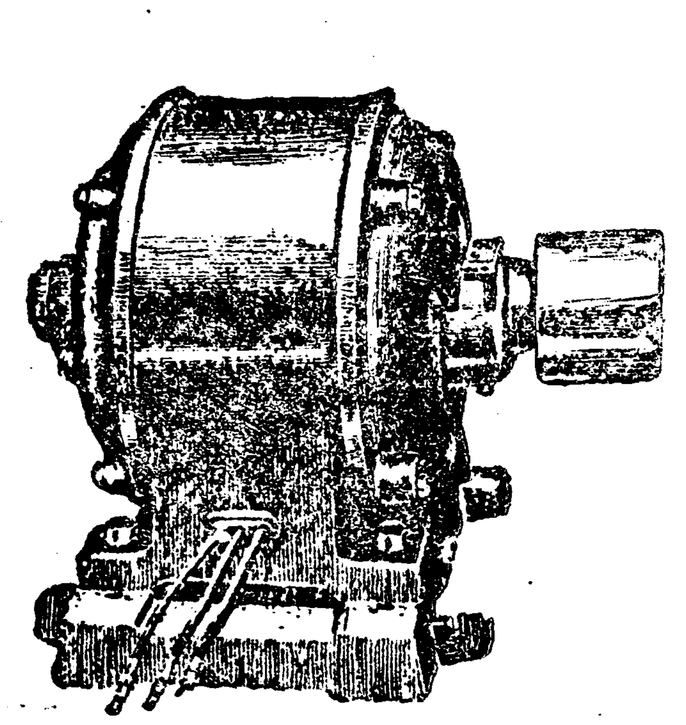
意匠

의卓越한것뿐만안이라音質、音量은最高水準을表示하고잇다。一一七號는二重모ㅣ타ㅣ一一七號E는電氣모ㅣ타ㅣ



No. 117
¥80
No. 117E
¥100

コロムビアポータブ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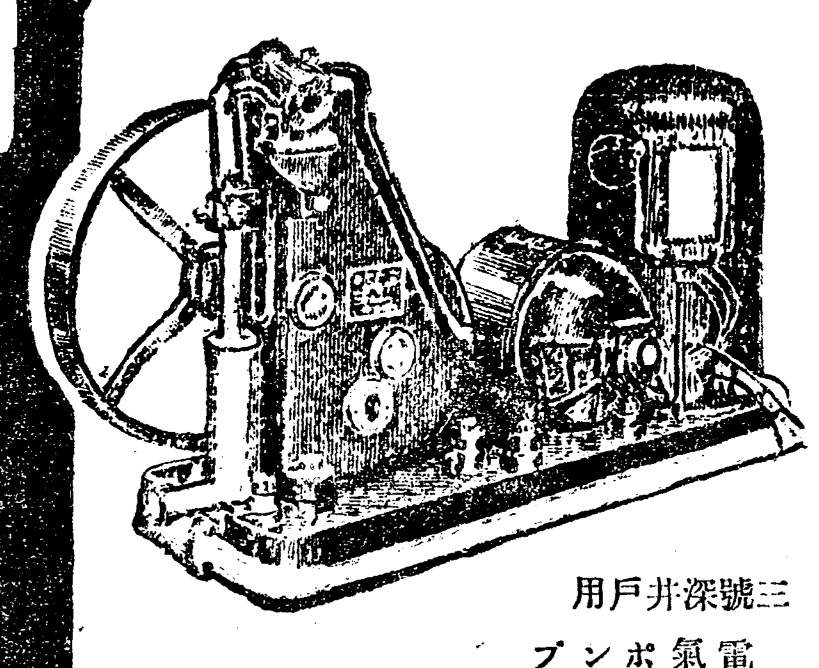
三馬力日立三相モートル

日立モートル

三相用
單相用
反撥起動式
分相起動式

日立電氣ポンプ

淺井戶用
壹号自動式
深井戶用
參号自動式
五号自動式
六号自動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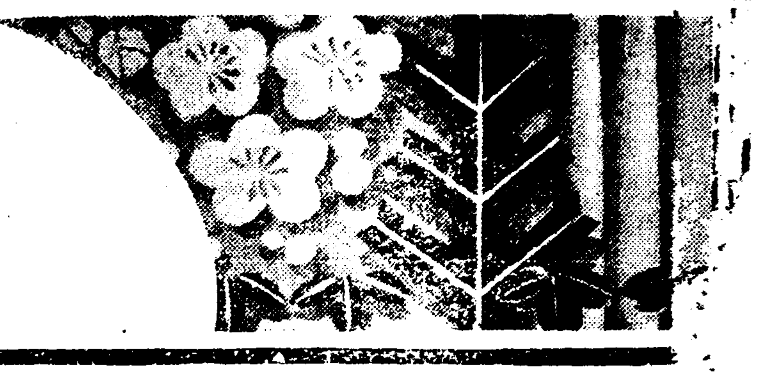


三號深井戶用
電氣ポンプ

日立製作所
東京丸ノ內

札幌市南二條西十三丁目
大連市山縣通リ一六
京城府南山町二ノ三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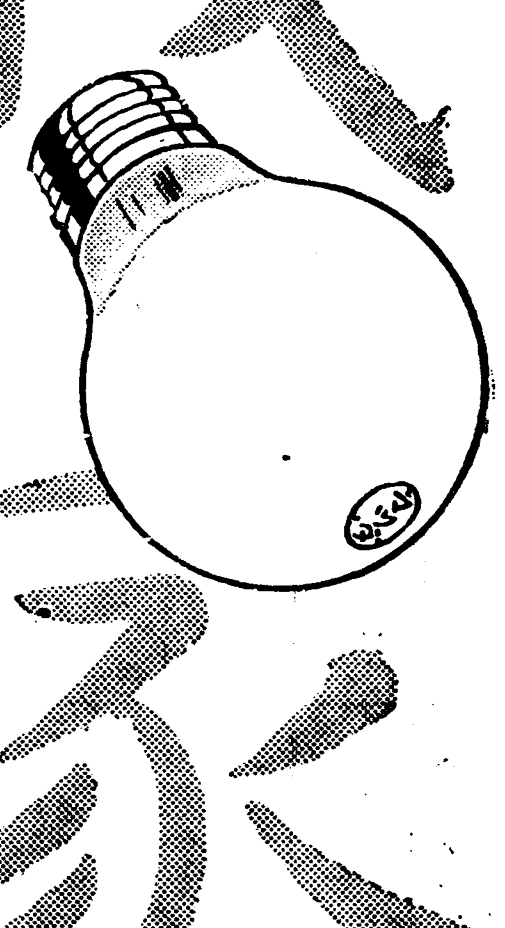
大阪市西區土佐堀通一ノ一
福岡市博多片土居町四一
名古屋市新柳町六ノ三ノ一



謹賀新年

恭祝萬祥

밝은 我家에



マツダランプ

製造元 東京電氣株式會社

富士ブロマイド

부사부로마이드

富士ポートレート乾板

부사포ー도레ー도건판

富士寫眞フイルム株式會社
本社足柄・出張所東京・大阪

作料를無理引上 不足分은債務換算

債權證書를써밧는地主

【儒城】상남각지에수십마두락의 토지를가진 대지주 조선흥업회사 대전관리소(朝鮮興業會社大田管理所)는 대전군유성면(大田郡儒城面)등지에약이천두락의 토지를 소유하엿는데 금년의도조는 전년도보다 척저상할이라는 놀랄만한 고률의집도를하게되야일백칠십여명중다부분의소작인들은이무리를 회사당국에 진정하는동시에 전부를납부하여도오히려부족이니납부할수업다고하얏드니회사측에서는 될수잇는대로 가저오라고 함으로 수량한 소작인들은 성의를다하야 잇는대로 갓다주고 모자라는것은 탕감하야주리라고 생각한것이 령감키녕 도로혀야단을 하면서모자라는것을 가저오지안는때에는 땅을 떼다고위협하며 마약가저올것이업거든 차용증서를 써주면녕년도에는 감하하야준다고 함으로순진한 소작인들은 땅이떠러질가두려워하야전부차용증서를써주엇다고한다그러나소작료잇는대로가저오면 조타고하고서 이것을식언한 회사이니만치 명년도에는 또한어떠케될는지 알수업서서 일반소작인은 불안상태에 잇다고한다

淸津의자랑 共樂館의新築

【淸津】일만사천원의건축비로서 건평일백오십평의인 오층양옥으로 된 공락관(共樂館)은 지난구월십일에 공공식에거행하야사개월만인 십이월이십구일에 준공락성식을 거행하얏는데 장소가신암동(新岩洞)이오구에잇는만큼 흥행물이외에도 시민의집회지로서도 대단히편리하다는데 압흐로잇서서 결혼식 강연회 연회등이만히 이곳에서개최되리라한다

會舘을新築하야 一般社會에提供

岐陽朴義圭氏壯擧

【岐陽】평남기양(平南岐陽)유지 청년박의규(朴義圭)(×)씨는일천여원의공비로 이백여명을 수용할 건물를독단으로 건축하야 지난달 이십삼일에 유지육십여명을 초대하야 김명환(金明煥)씨사회로 락성식을거행한바 락서사로 등단한 박군은 간단한이사의 말과가티 『우리기양사회에 공공한집회를할 회관과 젊은사람들이 모여놀수잇는 구락부(俱樂部)가업는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야 숙망든바 이건물을적으나 일반사회에 락성제공하오니 유용하게리용해달라』는인사를 하매 박수로 환영하고 니어서유지제씨에게서부터답지한축문축사가잇슨후김명환씨의의미심장한감상과인사와 동아회관(東亞會舘)만세삼창으로하오칠시에폐회하엿다

男便차저왓다가 子息까지빼앗기고

路上에彷徨하는可憐女性

【淸津】어린자식을 등에업고 태산가티밋든 남편을차저 정든고향을 눈물로등지고 사고무친한타향으로 살길을차저왓다가 고랑을가리할솔로알엇든 그남편에게 버림을당하고 사랑하는 자식까지빼앗기고눈물과 한숨으로 그날그날을 보내는 가엽슨녀성이잇다 고향을 함흥에두고 작년여름에 청진부내 모시장곤시인으로 잇는남편 고선근(高先根=假名)을 차저온 리성녀(李姓女)는 지금으로부터 십삼년전에 결혼하얏는데 그동안에장남해모(李諱)(×)와 장녀일모(日誄)를두엇스나 원래객지로돌아단니는남편이라 공방을 지키지도여러해가되며곤란한 생활에 쫏끼에어서린것들을 부둥켜안고 울기도 만이하엿다한다 그러나 한번나간남편은 종시돌아오지 안이함으로 오년만에야 남편을차저서어린것들을 다리고 청진으로와서그리던 남편을맛나 가정을일우는바 엇다들할하야 오든중 지난달에는 남편보다도십여년이나 나이가만흔 포항동(浦項洞)장예순(張禮順=假名)이라는노구와가정을일운다 용에사랑하는자식을다려다가장남은 나진(羅津)에사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버렷다는데 일시에남편과 자식을일허버린 리성녀는 의지할 곳조차업서서 이집저집으로 돌아단이며 어린자식들을생각하고 눈물로 세월을보낸다고 한다

稀有의凶作으로 全洞에離散者續出

四百窮民生途漠然

【金泉】작금량년 미증유의 천변지재로인하야 파멸의 절정에달한 경북김천군 대항면운수동(慶北金泉郡代項面雲水洞)은 일동 칠십호에 사백여명주민은 초근목피로 도연명을못하야 류리걸식자가 속출하는처상인데 압날의 업동을엇지경과할지 그생도가 막연하다고 한다

全北乾柿好評

【全州】전북특산물중의 하나인고산감(高山柿)은 생산수량은만흐나 판로가 열리지못하므로 매양 유감으로생각하든중 전주군에서는 산업의장려와생산품판매 통제를 목적하고 고산시과조합(高山柿果組合)을조직하고일수 판매권을 전주삼화상회(三和商會)에 두워 전조선중요도시에 전국 전북시(全北柿)를널리소개되게 되엿스며 금년에도지까지금약삼백만개의 판매고에른하엿다고한다

群택自動車 嬰兒를轢傷

【群山】지난이일오전구시삼십분 군산부소화통(群山府昭和通)대화려관(大和旅館)압으로에서 동대열정목김성운(金成雲)의차녀쌍녀(雙女)(二)가그형의등에 업히어놀다가군택자동차(群택自動車)운전수문채수(文采洙)자동차에치인바 즉시고교병원(高橋病院)에입원후 방금치료중이라는바생명이매우위독하다고한다

記者團懇親會

本報支局에서

【鏡城】평경읍내에잇는 조선(朝鮮)동아(東亞)매신(每申)국경(國境)압강(鴨江)각신문지자 일동은 지난삼십일에본보 귀성지국에서간친회를열고 일년간 귀성사회의과거를 회고하고 신년새계획을 다음과가티 결의하엿다한다

討議事項

鏡城邑內重要當面問題

1、幼稚園設置問題

2、共同沐浴場設置問題

3、公會堂建築問題

新聞支局經營政策

1、販賣率과收金率의均衡問題

2、幸運配付實施

3、新聞紙質改新

通信件

1、迅速報道件

2、連絡通信件

五百住民困窮

【通川】통천군림남면 명문암리(通川郡臨南面明文岩里)일대에사는 궁민오백여명은 사오년간계속하는 흉년에 초근목피로 연명하여오는바 근일에는적설로 그들의생도는 더욱참담하다고한다

孤兒들의慈母 李漢烈女史逝去

【公州】충남공주군 계룡산갑사(甲寺)에서 고아구제사업으로 풍덕원(豐德院)을 건설하고 의지가지업는 한과고독의 불상한사람들

稀有의大凶作으로 流離乞食者續出

嚴冬積雪로草根木皮도難得인 楊口郡下의火田民

【楊口】강원도양구는작년대흉작으로인하야 삼사할 내지칠팔할의 감수를 보게되야 일반농민들은괴아에직면하고 잇다는데 군면당국의 조사에나타난 상황을보면양구면웅진리사명산(楊口面雄津里四明山) 하의 화전민 오백삼십오호에 인구이천오백여명중 그반수이상이 식량이 두절되엿고그외에도 더욱 우심한곳은 수입면(水入面)으로 면내 일천칠백여호중팔백삼십이호가 방금먹을것이업서 목불인견의 참상이라하며 그중에는류리걸식자도벌서 오십여호나 되는현상인데 군면당국에서도 그구급책을 강구중이나 ... 에부심중이라한다

川內堤防工事 不遠에着手

【文川】함남천내리(川內里)는부근하천이 범람하야 매해그피해액이사오만원에 달하는참상을 이루든바 작추에 도토목과(道土木課)로부터 출장하야현지를 답사측량하고해빙기에는 공공사에 착수하리라한다

朱文楨君釋放

【興上】본적을 함흥군천서면지석리(咸興郡川西面支石里)에둔 주문정(朱文楨)군은 함흥경찰서류치장파괴미수(破毁未遂)사건으로이래구개월간이나함흥서에서취조를받다가지난이십구일에무사석방되엿다한다

總工費三萬圓으로 防水工事를決定

一月中旬着工豫定

【潭陽】전남담양읍담양천의범람으로 매년그피해가 막대하든바 지난봄부터 도사업으로 일원칠천류에방수공사를착수하야그준공을 보게되엿는데 또다시 가장위험한 시장부근에 방수공사를 하기로하야 총공비삼만원으로 일월중순경부터 공사에착수하리라한다

右水營駐在所員이 傷害罪로告訴當해

中國人理髮業者에게

【海南】전남해남경찰서우수영주재소(全南海南警察署右水營駐在所)에근무하는 순사김이보(金二寶)(假名)송봉영(宋奉榮)(假名) 두사람은 지난십이월 십륙일에중국산동성출생 해남군 문내면선두리(門內面先頭里)에서리발업을하는리춘성(李春成)(三三)을호주재소로동인의처 김씨(金氏)(二七)와한가지불러다가 구타한사실이 잇섯는데동중국인은분개함을참지못하야동월삼십일에 목포반도의원에서 십일간진단서를내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청(光州地方法院長興支廳)에상해죄로 고소를제기하엿다한다

金、宋兩巡査談 職務를行할뿐

조사하라면 그중 주인에게가서 하시요 우리는 영업감시를나갓섯든데 거만히 반항하기로불러다가시말서를바든일이잇소오온

잘못하엿던서 맛고보니분하오

被害者李春成談

한 열흘전에 송순사가와서허가장을 보자기 보여주는데그날도 와서 허가엿스나 하기예전에보지 안햇스나 한숙건방진놈이라 하고 또내처다려 이년저년하기에 남의처보고 이년저년하는것은 내처를 모욕하는것이라 한즉 호적도업스니 그러케되여도 괜찬다하면서 시말서를 써라하기로그대로써주고왓스나 동양사회에 다단엿스나 이런괴막키는일은처음이요 참분하오 이럽니서야 어대외국인이 마음놋코살수잇서야지요 마진것은 고소하엿스니 법이해결해 줄것이나이번일은 중국인을 너머 차별하는데서 나온행동인가하오

鶴南公普增築

【城津】성진군학남공보교(城津郡鶴南公普校)는 륙학년을 사학급으로하고 복식교수를하므로 아동교육상 조치못한 영향이밋치게되여 일반학부형은 유감으로생각하든바 학부형측에서는 교사증축과성회를 조직하는일방 학급증설운동을 계속하여오든바 작년십이월하순경에 교사이실을 륙천삼백원으로 증축하고 신학년부터는 이전과가티륙학급제도를 실시하리라는데 해교사 긔지(基地)와건물을 증축함에 대하야 면장 김종묵(金宗默)씨의 맹렬한활동으로 유지의 긔부금을 다음과가티바덧다한다

◇寄附者氏名及金額 梁承浩二百圓 金應相 百五十圓 金在甲 林瑞潤各百圓 金宗默九十圓 許在城六十圓 李炳秀 金榮麟各三十圓 金正鳳二十五圓 黃義甲 仝玕俊各二十圓 李炫傑 鄭炳德 許周日 許凡用各十五圓 黃昌俊 康俊植 朱允中 鄭完基 金東完 尹夏還 李在元 金南均 金鳳益 金昌觀 張應官 金琦燦 金學喆 朱龍燮 尹長福 梁京準 許翼衛 崔峻謙 崔桃仙 池田敬介 金南極 馬騰復各十圓 李國燮八圓 朴昌元六圓 金溪松外百十三人二百六圓 金俊鶴外二十五圓 日新洞百七十九圓 梁山洞百八十七圓 龍台洞百九十五圓 長坪洞二百十二圓 雲坪洞八十一圓 總一千一百二圓 雲坪洞百三十圓으로 비보조가상점질 백원가량이라 한다

竊盜로는新記錄 一夜十四戶侵入

器皿等物을多數竊取

【咸安】지난일일밤에함안군북면 신창(北面新昌)과덕대리(德垈里) 일부에 절도가침입하야 열네집이나 놋그릇을 모조리절취하여가버렷슴으로 그이입에전에 이보고를 접한군북주재소원들은 비지유봉 괴분도간여섭고즉시총동원하야범인수사에 활동하엿스나 아즉단서를어지못하고 헌터이는 중이며손해액은 방금조사중임으로 확실한 수자는 알수업스나 상당히다액에 달하리라한다

時價八千圓土地를 碧潼敎會에提供

金炳官氏夫婦의特志

【碧潼】벽동군김병관(金炳官)씨 부부는일즉이자선사업에만히하야 빈민구제와특히교육계에적지안흔 재산을기우려씨의칭찬이자자하든중지난번에 당지사립신명학교(私立新明學校)에금천원을 긔부하고 또금번 크리스마스 례물로논(畓) 팔천평(時價八千餘圓)을 당지 예수교회에밧처 일반신자는 씨의독지에경하를 마지안는다 한다

氷上의爭覇戰

定平서는五日에 定平體育會主催 本報支局後援

【定平】동계를 정복할용자들이 케ー트씨ー즌을마지하야이곳저곳서 건아들의 뉴ー스가들리여오는이 지음에 우리정평체육회주최로 금월오일에 제일회전정평빙상경기대회를 본보정평 지국후원으로 전개되리라는데 빙상경기대회가 처음인것만큼 인끄는자못비등하야대회의성황을예긔한다고한다

新昌서는六日에 新昌靑年會主催 本社支局後援

【新昌】함남신창항(咸南新昌港)에서는 과거수년동안 만흔사람의 흥미와 성황을일우어오든 스케트대회가 근년에와서는 하지못하게 되여 일반이유감으로녀기어오든바 금번에 신창개생청년부의 맹렬한 활동과 일반의동정으로 북조선스케ー트대회(北朝鮮氷上競技大會)를 청년부의주최와 본보신창지국과 신창공보교우회 후원으로오는 륙일오전구시부터 신창남대천경기장(新昌南大川競技場)에서개최하리라는데 각지방선수의 다수참가를희망한다고한다

金龍成氏特志

【谷山】황해도곡산군청계면(淸溪面)에는 면내궁민 륙십여호로 그들은방금 긔아에직면하고 잇다는데 이참상을목격한 청계면청송리(靑松里) 김룡성(金龍成)씨는일(大參)이석 수수이석을 그들에게 배급하엿다는데이혜택을입은 사람들은 를분일 반은씨의성의에칭송이자자하다고 한다

큰役軍養成機關 우리學校의자랑

信聖學校

學生風紀端整과 體育의普遍的奬勵

信聖學校는只今으로부터 三十年前丙午에設立되여長久한 歷史를가진 學校로써平北의 자랑이오宣川의 至寶이다 半島에는 아직도新學問이 收入되지 오래지못하야 一般이學校敎育을 그다지理解하지못하엿슬때에故梁何伯、魯學魯兩氏와金錫昌等諸氏는基督敎主義의 敎育을目的하고 同年四月에信聖中學校의開校式을 擧行하게되엿는데當時入學生은二十六人이엿다고한다原來基本財産이업시 設立하엿든마큼經營上困難이만헛든바 己酉年에이르러서는 米國慈善家携帶理一이라는女史의 莫大한寄附金으로土地川畓約九十六町步(約十萬圓)를買收하야 基本財産을만들게되엿스니 이것은同校의暗夜曙光이엿다 이에活氣를어더몃해를經過한 昭和二年度에는五萬五千圓의工費를投하야煉瓦三層의雄大한校舍를新築하얏고 昭和六年에는 總督府의指定認可를得하게되얏다 이로써同校의面目은一新하야저서 建物設備及其他의施設로보아 中等學校로서의遜色이업슬마큼되엿다 그러나아직까지도財團法人이되지못한것이 遺憾이든바昨年一月부터 二十五萬圓財團法人造成計畫을세워 職員及卒業生들의活動과 有志諸氏의援助로써不遠間完成이되리라하니 同校를爲하야 慶賀할바이다現在의財産은 二十萬圓으로써 經營의主體는 平北老會代表、義山老會代表、米國傳敎會代表等으로써組織한理事會(現理事十四人)에잇다職員은 校長張利郁氏以下十二人의敎員이잇고 在籍生徒는三百四十九人이며 同校의基地及建物은 校舍 一九七坪 寄宿舍 二七五坪 體育館二〇〇坪 附屬建物 一一三坪 運動場七九〇〇坪 實習地八〇〇坪 其他空地八〇一五坪 以上에보임과가티 七千九百坪의運動場과그와 連接한空地八千餘坪을加한 一萬五千餘坪의廣闊한運動場은 이學校의 자랑이라면자랑의한가지이다。보다도이學校의자랑으로서는 學校의歷史가長遠한마큼數만흔卒業生을우리社會에보낸것이다昨年度까지二十五回에四百八十五名의卒業生을내여社會各方面의 中樞으로 活動하는이가 不少하니 이것도자랑이 한아가될수잇겟스며 그리고한가지特異한點은 學生團束에特別置重하는것이다 이즈음每年가티新聞紙上에報導되는 學生風紀紊亂이란아름답지 못한消息을種種接하게되는이때에 特히이點에率先置重하야 外地學生은可及的全員寄宿舍收容의方法을 取하는等極力用意하는것이오 또한가지는運動奬勵에잇서서 一二種目보는一二個人의選手本位가아니라全校生普遍主義라는것이다 그리하야學校의名譽만을爲하려는傾向이업지안흔現下運動界에잇서서 純然한精神에서 出發하야어느生徒라도體育發達을爲한스포ー츠의本來의 어떠한競技에든지 普遍的技能을가지게하도록指導奬勵한다는것이 또한자랑이라고할것이다

◇信聖學校舍全景

好壽敦女高

音樂、運動等等 일곱가지特色

好高普校長 芮吉秀氏談

나는 우리好壽敦에 對하야 구라여자랑하려고아니하고 또 새삼스러이 우리학교의 理想을說明할 것이어엇지마는 이제이를 나다려말하라고하면 大略아래와가티 말하랴합니다

1、우리의校舍、歷史가기픈朝鮮의古都인 松都에도松岳山下明朗한位置에宏壯하고 華麗한 또理想的인 新式校舍、大講堂寄宿舍等이具備한 大建物을가지엿스며

2、우리의學生 朝鮮의딸들 아름답고도 씩씩한才媛四百餘名을모아新朝鮮의建設者、明日의일군들을 養成하고 잇슴을자랑하며

3、우리學校의先生 資格은勿論조흔人格、宗敎的修養기픈三十人의先生을 만흔사람中에서가리고 뽑아서時代가 要求하는 敎育의指導를삼은것이오

4、그리고 아리學校는 音樂과運動과雄辯으로 全朝鮮에서벌서놉흔水準을가지고잇는것을자랑하며

5、五百餘의 卒業生들이各方面에서有爲한活動을하고잇는것을자랑하며

6、우리學校는 松都五萬餘人士의뜨거운後援을바드며 널리朝鮮의도아줌을가진것을자랑하며

7、그리고하나는錦上添花로조흔宗敎를가진것을아니말할수업다

◇好壽敦女校校舍와 校長 芮吉秀氏

永明實修學校

自作自給의精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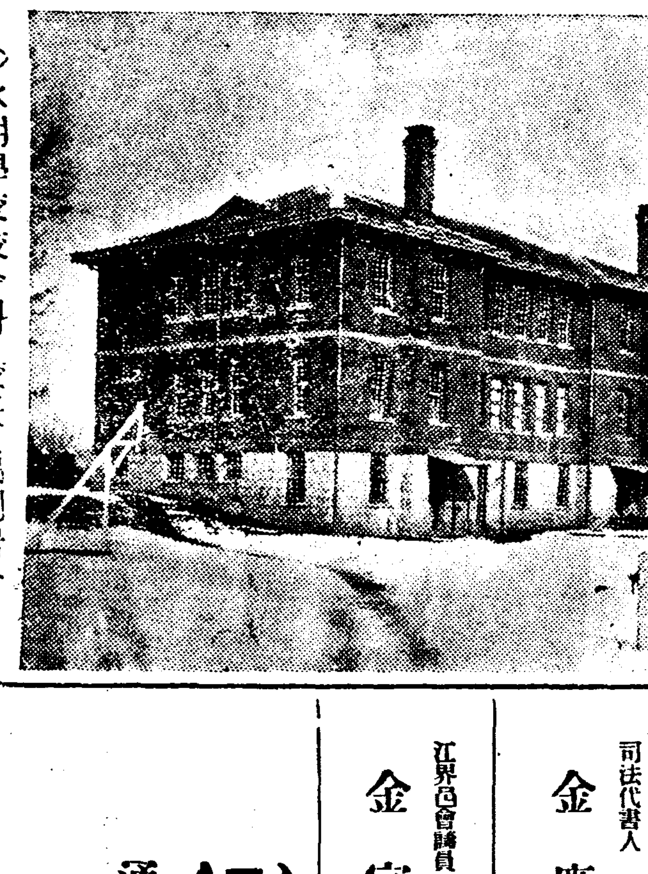
男學生은農場、畜舍에 女學生은織組、裁縫에

校長 禹利岩氏談

【公州】忠南公州는 歷史的道政地帶로 우리손으로 專門學校라도 建設의有力한者도 잇섯건만 단지私立中等學校로 米國人宣敎事業으로 過去二十六年前 設立된私立永明男女學校로 爾來만흔 靑年男女人才를 敎育하야왓거니와 時代의變遷을따라 現今朝鮮實際敎育의實業敎育이 必需且自作自給奬勵의精神으로 昭和七年度에 永明實修學校로 變更하고 農村靑年男女에게 必需인 農業改良의 農業에關한簡易木工、鐵工과 畜産에關한 敎科目을 敎授實驗中에잇서서 그學校의 자랑을소개하면 每日學科는 午前으로하고 午後는敎室內에職員이나 生徒의影子도볼수업시實習地를따라 男學生은農場畜舍、土木場鐵工場으로 女學生은織組室裁縫室、家事室、로散在하야實習服을입고活動하며奮鬪하는것이다그校長은일로부터 三十年前朝鮮에건너와서 爾來公州에서永明學校를設立하고 모든風霜을겪그면서변함이업시꾸준히싸운 禹利岩氏는左記와가티말하얏다

校長禹利岩氏談

나는朝鮮에渡來한지 今年까지 二十八年입니다 朝鮮에건너온當時부터朝鮮의溫和한氣候와地味의肥沃함을보고 余가敎育者가된다면智的敎育보다도 農事敎育과文士보다도農軍을養成함이 朝鮮將來를爲하야 必要하다고自信하고奮鬪하야오든것이 今日에와서야비로소宿志를일운것이외다운운



◇永明學校校舍와 校長 禹利岩氏

江界

中心都市平北上流 江界邑 營業年 市場取引 一四〇萬圓 爲替取引 一二〇〇萬圓 戶數 二,三〇〇 人口 一〇,五〇〇 在邑官公署

雜貨日用 榮興商店 本店 熙川邑內 電話二一番 支店 江界邑 電話四二番

江界邑會議員 李日華

商用百貨店 光鮮洋行 電話四四

平北江界邑 江界釀造株式會社 分工場 江界郡前川市 平南价川 同 淸浦鎭

江界精米所

江界電氣株式會社

三興自轉店主 三光堂時計店 主 崔德奎

平安自動車商會

京城旅館 海陸産物委託販賣 主 李聖國

綿布御商 沈淇碩

江界邑內 スミス工場

申明鎬

江界邑內 尹昌洙 電話三九番

大東醫院 電話一二〇

司法代書人 金應龜

木材鐵物商 田鍾禾

江界邑會議員 金宗元

江界 三成運送部

尹鳳汝

下北

通度寺宗務部 住持 黃鏡雲 監務 金鏡峰 法務 申丹舟 監事 吳澤彥 會計 金性鉎

梁山邑江川町 材木薪炭商 禹敬喆

梁山郡下北面職員一同

梁山郡上西面事務所 李成雨、金台根、張消奭、梁承夏、崔酉三、金永植、金舜經

梁山郡下北面 梁山金融組合長 下北面長 安永商

梁山郡下北面平山 內院寺宗務所

梁山郡下北面新坪 酒造場 姜址業

梁山警察署長 熊谷辰三郎

梁山郡廳

東面職員一同

梁山郡 北上面職員一同

熊上面職員一同

金正勳

梁山郡梁山面 面長 李世鎔

梁山金融組合

梁山郵便所長 岡田福三郎

梁山邑內 梁山トラック 李守天

梁山邑市場通 良州旅館主 安成生

山邑市場通大德社 木工所 李判龍

梁山面市場通 孫錫泰

梁山市場通明月館 朝鮮中華料理 高敬伯

梁山邑 ゴム靴雜貨商 李鍾奭

梁山邑 朝鮮料理 永樂亭 吳貴牙

梁山專賣局販賣所 所長 高斗東

梁山郡梁山邑廳通 司法代書所 曹秉鴻

梁山邑樋渡驛前 樋渡醫院 樋渡治次郎

梁山邑 朴正勳

梁山郡下北面草山里 面協議員 朴圓哉

梁山郡下北面新坪市場通 絹絲布木 日用雜貨商 黃甫鳳

梁山郡下北面新坪市場通 絹絲布木 日用雜貨商 李福萬

梁山郡下北面市場通 代書所 朴承澤

梁山郡下北面新坪里 丸黃精米所 黃圻桂

梁山郡下北面通度寺 金雪岩

梁山郡下北面新坪里 金永弼

下北面新坪里 理齊堂 辛鍾奎

下北面 龍淵酒造場 林㻍澤

梁山郡下北面芝山里 酒造場 李奉

上西面長 金正圭

勿禁驛前 梁南水利組合協會

東拓勿禁出張所 金汶基

東面石山里 李喆源

梁山郡上北面石溪里 上北精米所 文明九

梁山郡上北面石溪里 丸梁荷物自動車部 成讚

梁山郡上北面石溪里 鳴岡 膓胃病專門治療 東一藥房 姜弼周

梁山郡上北面 左森酒造場 金炳濬

梁山郡上北面 石溪酒造場 金永洙

京釜線院洞驛前 司法代書所 林基台

梁山郡熊上面西倉 司法代書所 金殷泰

城津

城津邑本町 夏目十郞兵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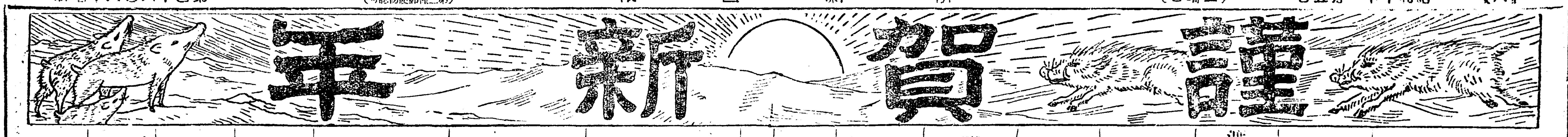
咸鏡線農城驛前 城津郡農會穀物精選場 金成禹

鶴東面事務所 職員一同

鶴上面事務所 職員一同

防洞 靑丘釀酒所 朴承燮

鶴東漁業組合 理事 李鍾華



遮湖

利原郡南面事務所員一同

咸鏡南道利原郡南面遮湖里 利原鐵山株式會社支店

咸南遮湖港 大元號 主 李柱範

遮湖公立普通學校

咸南遮湖驛前 ㈲湖南運送店 主 金學經

遮湖漁業組合

朝鮮咸南遮湖港 燒酎製造 穀物貿易 遮湖釀酒所 振替京城一九〇三六

咸南遮湖港 遮湖勞働組合

遮湖港 金漢雄

咸南遮湖港 馬超雲

上遮湖里 崔極連

朝鮮運送株式會社遮湖營業所 主任 寺內駒三郎

咸南遮湖港 遮湖醫院 李日煥

南面鎭岳里 知新普通學校

利原遮湖 李慶甲

製菓問屋 富士屋 主 李錫

遮湖港 京城洋服店 白惟燁

雜貨商 主 金在衡

咸南遮湖港 梁鳳翔

咸南遮湖港 兄弟商店

咸南遮湖港 雜貨商 德元商店 電略カネケン又八(呂)

遮湖 中山三吾

咸南遮湖港 康仁植

仁川稅關遮湖水産製品檢査所 淸水義海

利原郡曾山驛前 朴[?]雄

扶餘

忠南扶餘邑 御會席 朝鮮料理 錦湖館 主 權德洙

忠南扶餘邑 一手賣受 扶餘酒釀造元 共榮社 代表者 閔[?]

忠南扶餘邑 朝鮮料理 御會席 賞春園 主 趙溶九 金鳳鶴

忠南窺岩 御指定 染料直 百濟洋行 主 金殷濟

忠南扶餘面龍井 有志 黃漢尹

扶餘郡初等學校長會

忠南窺岩 窺岩研究會

忠南扶餘 白江俱樂部

窺岩面石東里 田明和女史

扶餘面自旺里 自旺酒造場 主 黃益相

忠南扶餘邑 米國シンガー裁縫機械會社 主任 李熹

忠南窺岩 面長 兪鎭晟

忠南窺岩 窺岩金融組合長 兪瑋濬

忠南扶餘邑 半月堂時計店 主 羅壽昌

扶餘郡場岩面石東里 有志 任達淳

良化面元堂里 有志 李豐鉉

林川面街校里 有志 金鎭哲

扶餘郡九龍面東方里 有志 朴鍾泰

忠南扶餘市 三成商店 主 金泰化

忠南恩山市 扶恩洋服店 主 劉壽福

忠南鴻山邑 湖一興業合名會社 洋服店 主任 朴炳玟

窺岩面內里 有志 金天培

場岩面長 姜鎭求

扶餘郡良化面 金仁培

扶餘郡石木里 有志 南宮楝

窺岩面窺岩里 林榮文商店

忠南扶餘邑 金璟錄商店

忠南扶餘邑 李小萬

扶餘邑 博濟醫院

寧遠

寧遠 東西醫院 院長 醫師 宋鎔容 宋憲植

寧遠邑內 南川俱樂部

美奈公會 寧遠作業場 金應基 蔡洙嚴

溫和面新香里 金生鑛業所 主 金明段

寧遠郡溫和面事務所 面長 孔大云 會計員 金芝麟 書記 金鳳衡

寧遠郡邑內 材木商 洪泰均

寧遠邑內 狗林釀酒場 金秉禧 孔大賢

寧遠郡邑內 金明奎

東信洋服店

寧遠邑內 司法代書人 洪箕範

寧遠郡邑內 盧時一

寧遠郡邑內 永信商店 朴來[?]

永興面中興市 元興商店 崔泓俊

平南地方產業技手 鄭承化

社倉市 福興商店 全尙玉

大興面社倉市 小南一男

大興面社倉市 高松鼎

寧遠金融組合社倉支所 社倉蔓蔘組合

大興面社倉市 公醫 金大鎭

平南寧遠郡邑內 朝鮮日報社寧遠支局 支局長 李玉鉉 總務記者 蔡珠銀 記者 金鍊寶 記者 金益瑀 記者 朴琛觀 顧問 白器琥

大興公普校職員一同

大興面事務所職員一同

金鍾錫

崔京述

方文柱

林山下 申國鉉

朴文昌

溫和面社倉市 金炯俊 金用錫

溫和面駐在所 部長 松本傳吉

寧遠邑內 李昇模

天道敎寧遠郡宗理院 院長 徐達悌

東信洋服店

嶺美

京義線嶺美驛前 印刷株式會社太宗社 電話五番・振替京城七七四九

京義線嶺美驛前 一般百貨 三一百貨店 主 金琮成

京義線嶺美驛前 蓄音器及レコードラヂオ 和洋樂器販賣 朝日樂器店 主 姜永俊

京義線嶺美驛前 英昌運送店 貨物自動車部 鄭英鎭

平北嶺美 諸機械 三友商會 振替京城二二八六五

平北嶺美 一般木材セメントノリスサ 瑞熙商會支店 主 崔載弼

平北嶺美 壽長醫院 院長 崔龍善

平北嶺美 太極商會

平北嶺美 ㊎丸金運送店 主 金昌玉 電話長四番

京義線郭山驛前 和洋家具製造販賣 新成木工場 主 金希瑞

平北嶺美 信日商會 主 安日彩

平北嶺美 中央公司

平北嶺美 穀物貿易 元興商會支店

平北嶺美 司法代書人 行政代書人 金昌立

平北嶺美 三和精米所

北青

新北青鐵道醫院

北青鐵道醫院 醫學士 洪[?]

咸南北青 共興株式會社

北青電燈株式會社

北青邑東里 德濟醫院 醫師 弓[?]德

新昌酒造場

北青邑中央通 和洋雜貨 都賣商 兄弟商店

北青郡新浦港 湧泉釀造場

北青邑內 官公署學校團

頒信運輸組主 文化株式會社長 朱貞順

俗厚驛前 張英默

北青邑內里 青陽醫院 醫師 趙炳淵

北青郡坪山面事務所職員一同

井邑

井州邑市場 海産物米穀 貿易委託業 湖一商會

井邑金曜會 代表電話一七番

井邑郡廳職員一同 電話四番

井邑金曜會 代表電話一七番

井邑釀造株式會社 電話一六五番

道會議員 朴明奎 電話一六三番

井邑郡梨坪面道溪里 道會議員 金相訓

井邑市場通 ゴム化專門販賣 德興商會 主 李瑞秀

井邑郡井州邑長明里 金相泰

湖南線井邑驛前 ㊀丸王運送店 店主 李[?]植 電話一六〇番

井邑市場通 綢緞布木 婚具一式 愼營布木商會 主 愼[?]植 取次電話三四番

井邑驛前 シエロン、コロンビヤ、ビクタ、ポリトン、レゴード 和洋雜貨、各種洋樂、食料品、蓄音器、ラヂオ各種 東日商會 主 金玩吉

德川面 面長 崔錠烈

井邑 土木管區事務所 電話三一番

井邑分店 シンガミシン 主任 朴在桓

古阜水利組合

所聲公普校 校長 加藤與之

淨土公普校 校長 金秉一

井邑醫院 醫師 車敬三

井邑驛前 高漢重

井邑本町通 和洋家具 建具一式 柳新商會 主 柳錫淑

井州邑市場里 河野正吉

井邑泰和堂藥局 主 柳鳳相

湖南線井邑驛前 荷物自動車部 主 韓石柴

染料原料 東華洋支店 支店長 朴鎔璐

井邑市場通 ゴム靴專門販賣 大昌商會

井州邑三山里 金仁燮

井邑郡內藏面琴明里 金鍾澤

井邑郡內藏面松山里 柳彩奎

井邑郡古阜面新興里 精米業 金鍾喆

井邑郡德川面望帝里 崔承烈

梨坪面下[?]里 李[?]奉

井邑郡梨坪面馬項里 徐秉翊

井邑本町通 海東商店 主 郭吉俊

井邑郡井州邑水城里 濟和堂藥房 主 黃文圭

所聲面曾化里 所聲釀酒場

古阜面職員一同

井邑郡壽金 永元水利組合

井邑產業組合 理事 福田嘉一

井州邑職員一同

井邑本町通 柳井洋服店 主 柳辰

井邑本町通 中央洋服店 主 朴甘泳

川原公普校 校長 安部里士 訓導 李文錫 訓導 金植孔 訓導 木村留藏 訓導 黃福秀

井邑農校 井邑普校 井邑小學

永元面 面長 宋源默

製坪面 面長 金元載

笠岩面 面長 柳載陽

淨土面 面長 金道允

雨順面 面長 李[?]賓

所聲面 面長 李元馨

內藏面 面長 李東鉉

全用祿

井邑郡永元面後池里 金洛鍾

井邑郡雨順面花海里 鄭昌玉

井邑郡永元面營成里 曺秉浩

井邑郡永元面營成里 曺光煥

井邑郡永元面營成里 曺正煥

井邑郡梨坪面馬項里 徐台玉

井邑郡古阜面龍興里 趙東奎

井邑郡七寶面詩山里 金宗文

井邑市場通 新[?]月 主 朴昌[?]

井邑平壤自轉車店 主 李文植

井邑郡七寶面詩山里 金俊基

井邑驛前 金錫煥

井邑郡德川面上鶴里 姜山千

井州邑長明里 鄭雲朝

松汀

合名會社 三和商會 代表 金宗奎 電話一〇一・一〇六番

營業科目: 精米 고무 肥料 原鹽 繩叭 外米 材木 燒酎 酒 海産物 — 貿易 販賣

李成泰商店 綱叭製造業 電話二二番

松汀勞働組合 精米運輸部

南蔡產業株式會社 電話六一番

松汀里 雙合盛鑄物工場 振替京城一五八九三

營業科目: 鑄物 木炭 コークス 銑鐵 黑鉛 雲母 耐火材料 / 風呂釜 鍋 其他一式

大同商會 精米部 布木部 主 梁永 電話五一番

李啓徹商店 精米 電話一二三番

湖南線松汀里驛前 乾材 蔘茸 藥材 延壽堂大藥房 主 朴泰容

湖南線松汀里市場 肥料 農具 各種機械 三天商會 主 洪錫珍

牛皮商 貿易 鮮興旅館 主 趙長玉

羅州龍山洞 水利組合 鄭莖燮

湖南線松汀里驛前通 大同고무商會 主 朴成淳

司法代書人 朱義在

綢緞 布木 婚具一式 德興商店 主 金基先

羅州郡三道面 三本酒造場 各種燒酒 天馬山藥酒 多粉 糀 麴 砂糖 松汀里支店 代表者 金擬洙

綢緞 布木 婚具一式 大同商會支店 主 金在植

有志 宋泰完

松汀職員一同